논개따라 삼백리

장수군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題字: 김진돈(전라금석문 연구회장)

논개 따라 삼백리



장수군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주논개가 밟은 역사의 길



논개 사당



사당 전경



논개 비각



의암사

논개 생가지



생가지 전경



논개 생가



기념관

함양 논개묘



함양 논개 부부묘



추모비



함양 의암사

진주성



촉석루



의암



의기사



발간사

『논개따라 삼백리』 도록 발간 통하여 현대사 재조명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고장의 자랑이며 우국충절의 여인 의암 주논개님 탄신 제443주년을 맞이하여 『논개따라 삼백리』 도록 발간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도록 발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최용득 군수님, 장수군의회 유기홍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조사 및 사진 촬영과 원고 연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나종우 박사님과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논개따라 삼백리』도록 발간은 장수에서 태어나 꽃다운 나이에 진주에서 우국충절의 마음으로 생을 마칠 때 까지 열아홉 생의 발자취를 따라 그 생을 더듬어 보며 민족얼 정신을 이 시대 정신에 비추어 본받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핵가족화의 사회 변화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각박해져 가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봉사하고 희생 할 줄아는 정신을 습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의암 주논개님의 충(忠)·의(義)·열(烈)의 정신과 발자취가 담겨 있는 『논개따라 삼백리』도록 발간을 통하여 현대사에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1일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김 순 홍

축간사

논개님의 발자취와 고귀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가을이 깊어가는 풍성한 계절에 탄신 제443주년을 기념해 논개 정신 선양을 위한 『논개따라 삼백리』 도록 발간을 하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논개 정신 선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김순홍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수군은 백두대간을 잇는 전국 8대 종산 중 하나인 장안산을 주봉으로 힘차게 내리뻗은 능선들이 웅장한 기개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안산 자락의 기개를 이어받은 우리 장수는 임진왜란 때 왜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의암주논개님이 태어난 자랑스러운 충절의 고장입니다.

매년 주논개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행사를 해 왔지만 『논개따라 삼백리』 도록 발간은 매우 의미있습니다.

논개님의 발자취와 고귀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잊혀져 가는 민족정신과 올바른 역사관을 계승 발전시키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장수군도 더 깊은 관심으로 논개 정신 선양 사업에 연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개따라 삼백리』 도록 발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21일

장수 군수 최 용 득

축간사

바른 역사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논개의 정신과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안호영입니다.

『논개따라 삼백리』 도록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서적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애써 주신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김순홍 회장님과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에서 태어나 진주에서 꽃다운 생을 마칠 때까지 열아홉 생의 발자취를 따라 삼백리 길을 더듬어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논개라는 한 여인의 단순한 여로가 아니라 질곡의 역사 뒤에 숨겨진 아픔과 젊은 여인의 우국충정, 그리고 사랑에 대한 대서사시가 녹아 지금도 면면히 향취를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가(班家)에서 태어나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고 시문에 능했지만 부친의 별세로 숙부에 의탁하게 되었고, 고초를 겪던 끝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지만 결국 전쟁 속에 지아비를 잃고 원수와 자결로 생을 마감하는 인생은 어떤 소설보다 감동적입니다. 시대와 운명에 맞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개척하며 살아간 '여걸' 의 드라마입니다.

민며느리 혼인을 피하려고 어머니와 걸었을 경상도 안의현의 친가로 가는 길가에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들꽃이 피고 지며 그때를 기억할까 상상해보면 두 여인이 다정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정경이 물안개처럼 아련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의암 주논개와 관련해서 출생지 장수, 순절한 진주, 묘소가 있는 함양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논개따라 삼백리』 도록 발간을 계기로 관심을 높이고 바른 역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논개의 지고지순한 충절과 사랑의 여정을 따르는 순례의 길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운동화 끈을 동여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불꽃같은 삶을 초개처럼 던졌지만 삼백리 길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는 '논개' 를 이 책에서 먼저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17년 10월 21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국회의원 안 호 영

축간사

논개님의 충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



예로부터 우리 장수는 충절을 중요시 여겨 장수삼절(長水三節)로 잘 알려진 의암주논개님의 고장입니다. 또한, 진주, 함양 역시 주논개님의 얼과 넋이 깃든 고장입니다. 이런 세 지역의 논개님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이어받기 위한『논개따라 삼백리』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논개따라 삼백리』도록 발간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김순홍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개님은 우리 고장 장수에서 태어나셔서 임진왜란 때 풍전등화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적장을 안고 진주 남강에서 순절하여 함양에 묻히셨습니다.

이처럼 장수, 진주, 함양 세 고장은 논개님의 우국충절의 정신을 간직한 충절의 고장이라 생각합니다.

장수, 진주, 함양 세 고장에서 살아 있는 논개님의 정서와 사상을 한 곳에 모아 집필하여 초개 같이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하신 논개님의 충절을 널리 알릴 수 있는『논개따라 삼백리』도록 발간이야 말로 논개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논개따라 삼백리』도록 발간을 축하드리며 논개님의 희생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10월 21일

장수군의회의장 유 기 홍

차 례

4 논개가 밟은 역사의 길

6 발간사 | 김순홍 사)의암주논개전신선양회장

7 축간사 | 최용득 장수군수

8 축간사 | 안호영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국회의원

9 축간사 | 유기홍 장수군의회의장

CHAPTER 1 사적지

14 논개표준영정

16 논개사당

18 의암사와 편액

19 논개 기념관

20 의암 주논개생장향수명비

21 의암송

22 의암공원

24 논개생가지

25 논개생

26 의암주논개랑생장지사적불망비

27 의암주논개 동상

28 의랑루

29 논개기념관

30 논개부모 묘

31 의암신안주씨논개지려

32 육십령

34 월강사

35 의암주논개묘역

36 의암논개반장의병추모비

37 함양 의암사

38 화순 충의사

39 의암 영각

40 진주성

41 촉석루

42 의기사

44 의암

46 진주성도

47 일제강점기 촉석루

의암을 노래한 시

48 한용운 : 논개의 애인이 되아서 그의 묘에

51 고 은 : 논개의 나라 사랑

52 변영로 : 논개

53 고두영: 그 이름 의랑 논개

54 어우야담

55 의암기

CHAPTER 2 제향

58 의암별제

62 제례봉행

64 기념식

65 논개상추대식

66 논개 판소리

67 농악

68 논개시 퍼포먼스

69 심포지엄

70 역대 의암 주논개상 추대자

CHAPTER 3 논고

74 1593년의 논개.2017년의 논개

chapter I

사적지

만나야 된다
만나러 가야 된다
만나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어쩜 희미해진 기억 저편에 있을지라도 꼭 만나야 되고, 만나서 세월 속에 묻혀서 얼룩으로 가득 찬 모습을 닦아내고 마주 대하고 싶다. 그리고 듣고 싶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가를. 또 푸른 남강 물 그 위로 꽃잎 하나 되어 몸을 던질 때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를.

논개 이제 당신은 만인의 애인이 되어 당신이 태어난 그곳에도, 당신을 기리는 사당에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시 속에도, 당신을 생각하며 세워진 비碑 위에도 불멸의 혼으로 계십니다. 시공時空을 뛰어넘어 주름지지 않은 불멸의 혼으로 거기에 계십니다.

논개 이제 당신은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십니다. 당신을 마주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 우리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나를 돌아보는 정신적 교감交感의 대상이십니다.
대개의 인물들, 사건들은 세월이 흐르면 퇴색해지고, 희미해져서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개 당신의 자취는 천추千秋에 길이 남을 불멸의 혼으로 오늘 우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자취마다 자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념물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메시지를 던져줄 것입니다.

논개 표준영정

현재의 표준 영정은 2008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표준영정 제79호로 지정한 영정이다.
원래 의기사에는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미인도 논개' 그림의 사본이 걸려 있었으나,
2005년 6월 10일 한 진주 지역 시민단체가 김은호의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
의기사에 봉안되어 있던 논개 영정 사본을 무단으로 뜯어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논개의 출생지인 전북 장수군과 순국지인 경남 진주시가 공동으로
표준 영정 제작에 합의해 전국에 걸쳐 공모를 하였으며,
충남대학교 윤여환 교수가 새로 그린 그림이 표준 영정으로 채택되었다.



논개표준 영정

의암사(논개 사당)

지정 : 기념물 제46호
위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43번지
규모 : 면적 28.274㎡

1846년 당시 장수현감이었던 정주석은 논개의 충절을 선양하고 논개가 장수 태생임을 기리기 위하여 논개생장향수명비論介論介娘生長鄕竪命碑를 세웠다. 그러나 1942년 11월에 일제에 의해 매몰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 비는 1945년 해방이 되고 다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지만 1950년 6.25전쟁으로 다시 한 번 수난을 당하여 비각은 단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방치되었다. 그러나 뜻있는 지역 인사들이 비문에 근거하여 의암사를 건립해야 된다고 뜻을 모아 1954년 의암사건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55년에 군민들의 성금으로 남산에 사당을 건립하여 1956년에 '의암사'란 이름으로 준공하였다. 그러다가 1974년 현 위치로 옮겼다. 경내에는 생장향수명비각, 기념관, 외삼문, 내삼문, 충의문, 영정각이 차례로 있다. 의암사義巖祠란 현판은 당시 부통령 함태영의 친필이다.



의암사당의 풍수

조선조 영조 때 전라감사 이서구가 이곳을 지나다가 당시 묘지였던 현 사당 자리가 산줄기가 힘차고 음양의 조화 굴곡이 아름다워 이르기를 "높은 나무 위에 혈이 단정히 맺혔으니 가을 매미가 깊은 숲 속에서 노는 형국이고 앞에는 팔공산이 목산木山으로 뒤에는 말산이 화산火山으로 상생을 이루어 맑고 곧은 앞날의 열림이 눈 아래에 크게 펼쳐져 산봉우리가 크게 작게 연달아 이어짐이 길하리라. 장막 같은 협곡을 뚫고 가는 현상이 말의 힘찬 달림과 같으며 산줄기가 힘을 주어 뭉치어져서 마지막 큰 터를 이루고 혈의 주위가 모가 진 듯하여 단정하고 당처가 분명하게 들어나며 좌청룡 우백호가 거듭거듭 쌓여져서 혈을 감싸고 도는 물과 산이 거듭하여 물길이 옥띠와 같이 감돌았으니 어찌 큰 터가 아닐 수 있겠는가. 오행으로 보아 좋은 형국으로 귀한 이의 집터가 되리라 … (중략)…좋고 좋은 명당자리로 천만년에 이르기까지 제사를 모시게 되고 행사를 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다.

그의 풍수설대로 오늘날 이곳을 찾고 참배하는 모든 이들이 사당에 올라 앞을 내려다보고 명당 중의 명당이고 큰 터중의 큰 터라고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의암사 편액 함태영



의암사



논개 기념관 실내



논개 기념관

의암주논개생장향수명비

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命碑

위치 : 의암사 경내

이 비는 1844년(헌종10)에 이 고을에 부임한 정주석鄭胄錫 현감에 의하여 1846년에 세워진 것이다.

이 비문은 전면에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당시 현감 정주석이 지은 비문이 있다.

비문의 일부를 옮겨 보면

"질풍이 몰아치듯 국난을 당하였음에도 구차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를 굽히지도 않은 것은 열사라도 어려운 일인데 한갓 여자의 몸으로대의를 판단하여 죽음을 대하기를 마치 집으로 돌아가듯 하였으니 그 어찌 열렬하지 아니한가. 그 당일을 생각해 보건대 그 늠름한 열기가 해와 별같이 빛났으니 그 어찌 장엄하다 아닐 쏜가 …(이하생략)…





의암사 주논개생장향수명비

의암송

위치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천연기념물 제397호. 수령은 약 400년으로 추정되며, 나무의 높이는 8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는 3.2m이다.

이 나무는 원줄기가 외줄기로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부터 1m쯤 되는 곳에서 시계 방향으로 뒤틀어져 있고, 지상 3.5m 되는 부분에서는 두 개의 큰 가지가 남북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북쪽 가지의 직경은 80㎝, 남쪽 가지의 직경은 50㎝정도이다. 이 나무는 장수군청 청사의 앞에 있다.

이 나무는 의암 논개가 장수현감 부실이었을 때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의암송의 앞쪽으로 남산이 바라보이고 남산 가까운 곳에는 논개의 영정이 있는 의암사와 그 아래에는 의암호가 있다. 장수사람들은 애국의 절조가 하늘에 이른다고 보는 논개의 출생지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의암송은 논개의 절개를 상징하듯이 자라고 있다.



의암송(장수군청)

의암공원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에 12.5ha 면적의 의암공원은 2010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하였다.
충혼 테마 숲으로는 경관 조명 및 미로고원과 숲 속 산책로, 쉼터, 의암루 LED조명, 충혼탑 경관 숲 조성 등이 있고 , 문화 테마 숲으로는 의암호 수변테크, 축제마당 동선 포장을 해 놓았다. 충절 테마 숲으로는 충절 숲 조성(사당내 조경 정비), 산책로 등이 있다.





논개 생가 사적지

임진왜란 때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함께 죽은 논개(論介~1593)를 기리기 위해 조성한 곳이다. 논개의 성은 주씨(朱氏)이고,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태어났다. 1986년 대곡저수지(오동제)를 만들면서 논개가 태어난 마을 전체가 수몰되자 저수지 근처에 생가만 복원해두었다가 1996년부터 2000년에 걸쳐 조성한 현재의 위치에 새로 복원하였다.

현재 의암 주논개 생가지에는 생가뿐 아니라 논개기념관 · 단아정(丹娥亭) · 의랑루(義娘樓) 등의 건물과 주논개비 · 최경회비 · 주논개 부모묘 등이 있고 민속놀이 마당과 인공폭포 · 관리사 · 판매점도 조성되어 있다. 부지 면적은 약 6만 6,100m²이다. 생가는 건물 2동으로 이루어진 '一' 자형 초가로 돌담으로 둘러져 있으며, 방 안에는 영정과 침구, 책들이 놓여 있다.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에는 논개의 영정을 모신 논개사당(전라북도기념물 제46호)이 있다.



생가지 전경





논개 생가 내부



논개 생가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

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

위치 :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논개 생가 앞

이 비는 임진왜란 당시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죽이고 순국한 의암 주논개가 태어나서 자란 터를 기념하기 위해 1960년에 장수군민들의 정성으로 건립하였다. 당초에는 주촌 마을 입구에 있었으나 대곡 저수지의 축조로 인하여 1997년에 생가生家 앞으로 이전하였다. 비문의 내용은 이 마을이 주촌朱村이라 부르게 된 연유와 논개의 탄생에 관한 일화 그리고 대의大義를 이루었음을 기록하였다.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



의암 주논개 동상(논개 생가지 내)

의랑루

위치 : 논개 생가지 경내

1996년에 논개 생가 복원을 시작하여 생가, 석상, 기념관 등을 갖추고 2000년 9월에 준공을 하였다. 이 생가를 들어가는 첫머리에 의랑루義娘樓를 세웠다. 논개는 사후에 의기義妓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렀는데 사당의 이름도 처음에는 의로운 기생이란 뜻의 '의기사'로 불렀다. 그 뒤 순조 때에 이를 중건하면서 이름을 '의로운 낭자의 사당'이라는 '의랑사'로 고쳤다. 1898년 황현黃玹의 시에 '풍천 나루 어구에는 물이 더욱 향기로워 옷 빨고 얼굴 씻어 의랑에게 절하노라' 라고 썼다. 이후 진주의 '의랑노래비' (1954), 장수의 '의랑논개' (1977) 등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의랑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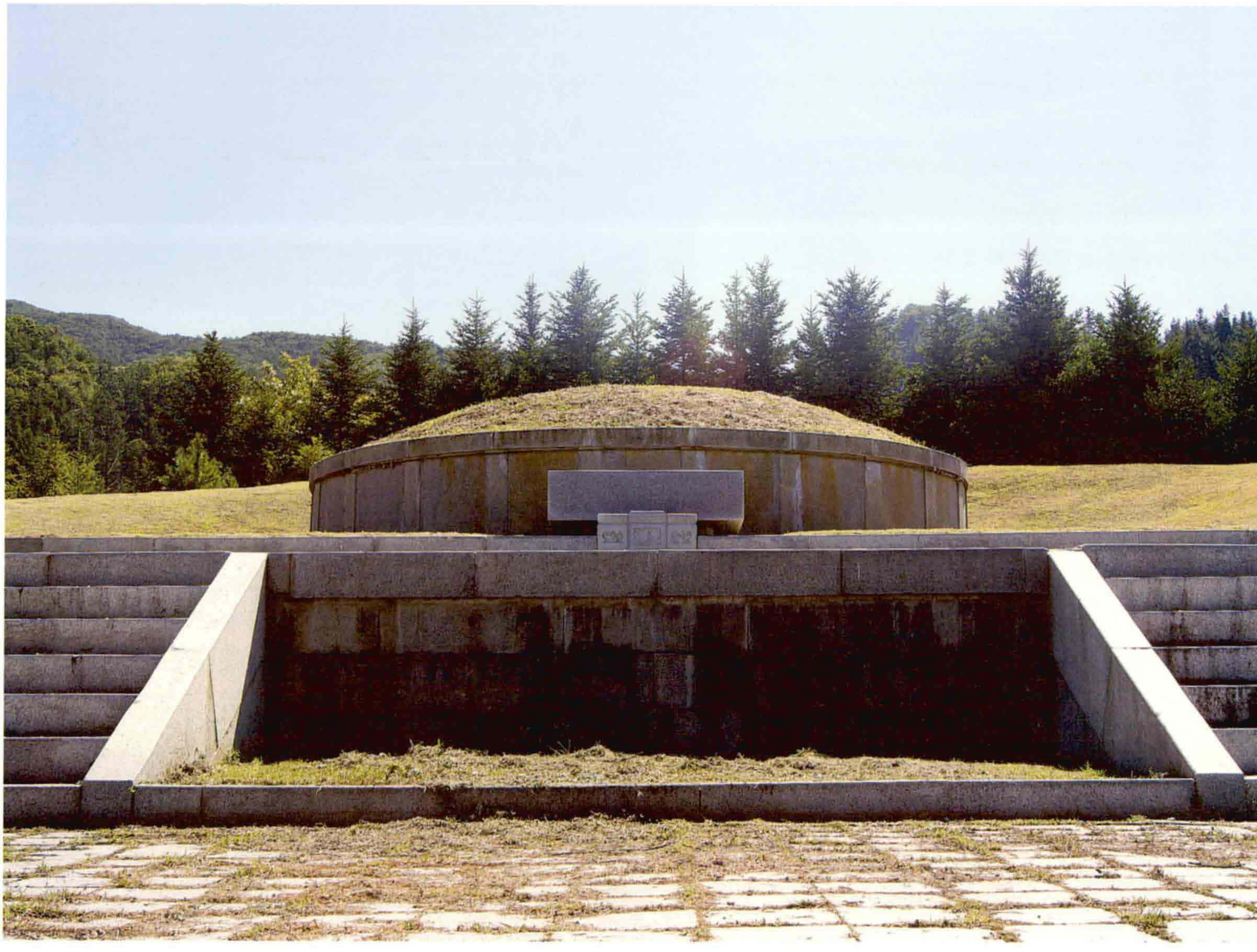
논개 기념관(논개 생가지 경내)





논개부모 묘

주논개는 의로운 죽음으로 태산보다 큰 뜻을 세웠으나 후손이 없어 부모님의 묘소를 돌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장수군민들은 신안주씨 중앙종친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 12월 17일 갑자로 채백하고 2000년 5월 5일 봉분을 지었다.



논개부모묘

의암신안주씨논개지려

義巖新安朱氏論介之閭

진주시 소재

1966년 주촌마을 입구에 '의암신안주씨논개지려義巖新安朱氏論介之閭가 복원되었다. 이 정려旌閭에는 옛 기록에 정려가주촌마을 입구에 서 있었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무너져 없어지게 되어 그 거룩한 뜻을 후세에 전할 수 없기에 다시 세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의암사적비와 그 비각인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

육십령

육십령(734 m)은 백두대간 꼬리 쪽에 붙은 큰 고개이다. 육십령이라고 부르는 데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설은 장수 감영에서 이 고개까지가 육십리요, 안의 감영(현재 함양군 서상면)에서도 육십리여서 육십령이요. 둘째는 크고 작은 60개 굽이 또는 고개를 지나야 넘을 수 있다고 해서 육십령이라 했다고 한다. 셋째는 고개가 높고 험한 재로 도둑들이 들끓어 60명이 모여야 고개를 넘을 수 있다 해서 '60령'이란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당시 장정들이 모였던 주막이 있는 곳을 장군동(壯群洞)이라 하고, 산적들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된 피적래(避賊來)라는 마을도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 같은 사실이 잘 기록돼 있다.



현 육십령

옛 육십령

육십령에서 바라본 소규모 산간분지
장수군 장계.(1901년 촬영)



옛 육십령(종걸 스님 제공)

월강사月岡祠

지정 : 문화재 자료 제31호
위치 :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5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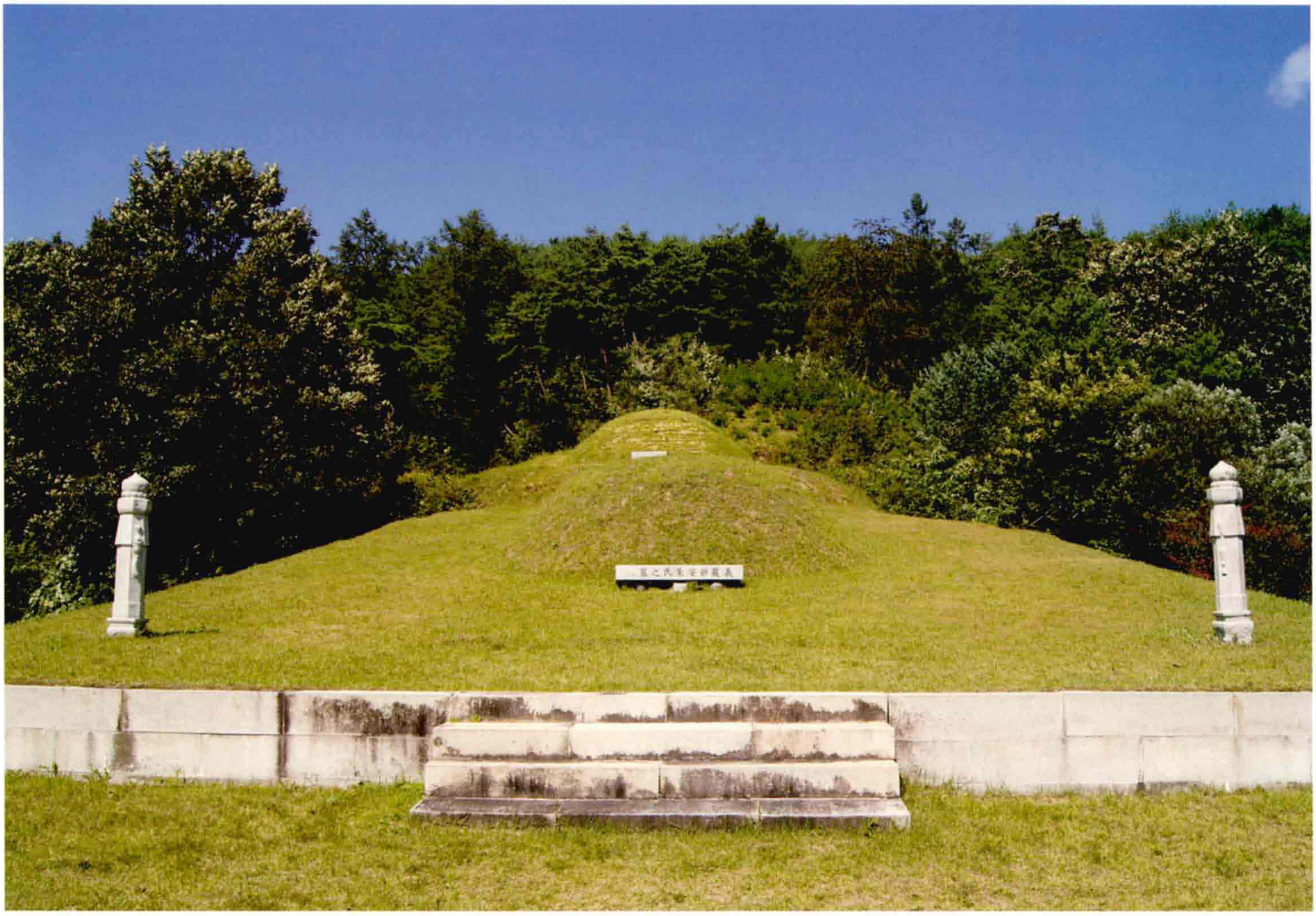
월강사는 월강리 도장마을 입구에서 서쪽으로 있는 나지막한 야산의 남서쪽 사면斜面에 자리 잡고 있다.1828년(순조28)에 창건 되었으며, 1868년(고종5)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광복 후 1948년 복설되었다. 이 월강사에는 충숙공 정신재, 퇴휴재 송보산, 손재 김남택, 충의공 일휴당 최경회, 퇴거재 김남중, 삼락당 송수산, 경재 백여옥 등 일곱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 곳 월강사 터는 1593년 최경희 장군이 의병을 모아 주둔했던 곳이며 의병청이 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를 향해 출정했던 의병들의 출발지이기도 한 곳이다.



의암 주논개 묘역

위치; 경남 함양군 서상면 당지리

최경회 장군을 따라 진주성에 가서 용감하게 싸운 장수 의병들 가운데 성이 함락되면서 살아 남은 80여 명이 야음을 틈타 진주성을 탈출하여 최경회 장군과 논개 부인의 장렬한 순절을 탐지하고 시체라도 고향 땅으로 같이 돌아가려는 충정으로 남강 하류의 수색 작업을 개시하여 창원 지수목에서 최 장군의 시신과 왜장을 껴안은 채 논개 부인의 시신을 발견하고, 두 사람의 시신을 고향 땅 장수로 모시고 가려 했지만 여러 가지의 당시의 사정이 이 곳 함양 서상 금당리까지 운구하여 이 곳 삼남대로변 양지바른 언덕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역사 속에 조용히 묻히는 듯했다. 그러다가 조선조 말엽 장수의 석학이신 우재遇齋 오덕렴吳德濂 선생의 유고遺稿『경독재집耕讀齋集』의 인물편 崔慶會章에「최경회는 장수현감 진주병사의 벼슬에 있었다. 임진 계사의 난리 때에 진주에서 패전하고 살아 남은 의병이 주논개 시신을 거두어 운구하여 안의현 서상면 방지마을 당산 뒤쪽 골짜기에 묻었다 하더라」라는 기록이 나왔고, 또한 당시 고향에 돌아온 의병들이 의병들이 후손에게 남겨준 설화가 장수고을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왔다. 1980년대 후반 함양군의 논개묘 성역화 사업으로 봉분을 다시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주위를 정화하였다. 풍수가들은 이곳은 '연화부수지좌蓮花浮水之座' (연꽃이 물위에 떠있는 자리)라하여 명당이라 하였다.



의암논개반장의병추모비

위치: 경남 함양군 서상면 당지리

1989년 함양군에서는 논개와 최경희 장군 무덤을 새로 조성하고, 재실을 마련했으며 무덤 우측 동쪽에는 운구한 의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의암논개반장의병추모비를 세웠고 찾아오는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 넓은 주차 공간도 마련했다. 함양군 유림에서는 매년 논개를 추모하고 충절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논개가 왜군의 진주성 함락 승전 연회 때 의암 바위에서 적장과 함께 강물에 투신, 순절한 날인 음력 7월 7일날 이곳에서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의암사
(함양 서상면 당지리)



화순 충의사

위치 :전남 화순군 동면 중의로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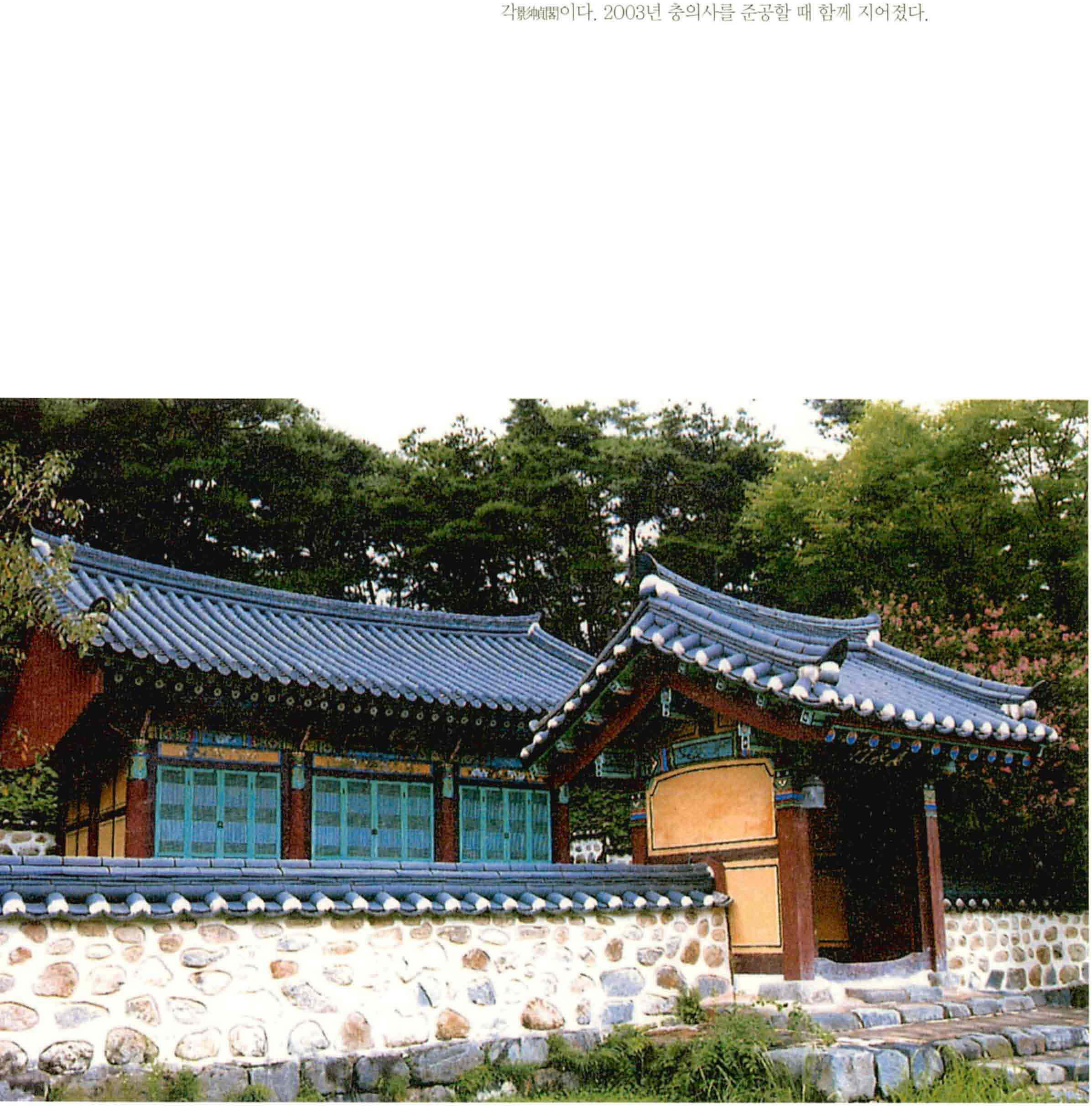
전남 화순 동면에 위치한 충의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삼장사의 일원으로 순국한 최경회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祠宇이다.

최경회 장군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운 · 경장 두 형과 아들 홍기, 조카 홍재, 홍우와 함께 의병청을 설치하고 수천의 의병을 모아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상복 차림으로 북상하여 금산 · 무주의 왜적을 격퇴하였다. 그뒤 1차 진주성 싸움에 참가하여 대승을 거두고 1593년 2차 진주성 싸움에도 참가하여 끝까지 항전하였으나 성이 무너지니 김천일 고종후 장군과 함께 촉석루에 올라 남강에 투신 순절하였다. 후일 충의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진주의 창렬사, 능주의 포충사, 화순의 삼충사에서 제향해 오다가 고종 때 포충사와 삼충사는 훼철되었다.현재의 충의사는 화순군민의 숙원으로 2003년에 준공하였다. 경내에는 사당, 내삼문, 사적비, 의맘영각, 기념관, 외삼문, 동상, 충효관, 관리사무소, 홍삼문, 어비록 등이 있다.



의암 영각

전남 화순의 충의사 경내에 있는 '의암 영각'은 임진왜란 당시 2차진주성 싸움 뒤 의암에서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한 논개의 영정을 모신 영정각影幀閣이다. 2003년 충의사를 준공할 때 함께 지어졌다.



진주성

위치: 경남 진주시 남성동에서 본성동까지

진주성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진주의 성지(聖地)이다. 본시 토성이던 것을 고려조 우왕 5년(1379)에 진주목사 김중광(金仲光) 석축하였다. 조선조 선조 24년(1591) 7월, 경상감사 김수(1537~1615)는 진주성을 수축하고 외성을 쌓았다. 동 25년(1592) 10월, 임진왜란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 154~1592)이 3,800명의 군사로서 3만여 명의 왜적을 물리쳐 진주성 대첩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계사년(1593) 6월에는 전년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10만여 명이 또 침략하여 끝내 진주성이 함락되어 7만 민관군이 순절하는 비운을 겪었다. 이때 논개(論介)는 적장을 안고 남강(南江)에 투신하였다.



촉석루矗石樓

지정 : 경남 문화재 자료 제8호
위치 : 진주성 남쪽 남강변
규모 : 정면 5칸,측면 4칸

진주시 본성동 남강변 절벽 뒤편에 있는 진주성의 남쪽의 주장대이다. 1241년 고려 고종 28년 축성 당시에 부사府使 김충광金忠光 등의 손으로 창건하여, 장원루壯元樓라고 불렀다. 그 뒤 7차례의 중건과 보수를 거쳤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촉석루矗石樓로 명명되었으며, 용두사龍頭寺의 남쪽 돌벼랑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593년 7월 29일 왜군의 파상적인 공격으로 진주성 동문이 무너지자, 김천일, 최경회, 이종인 등은 이곳에 모여서 결사항전 하였으나, 모두 전사하거나 남강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졌다가 1960년 진주고적보존회에서 재건하였으며 앞면 5칸 · 옆면 4칸이다.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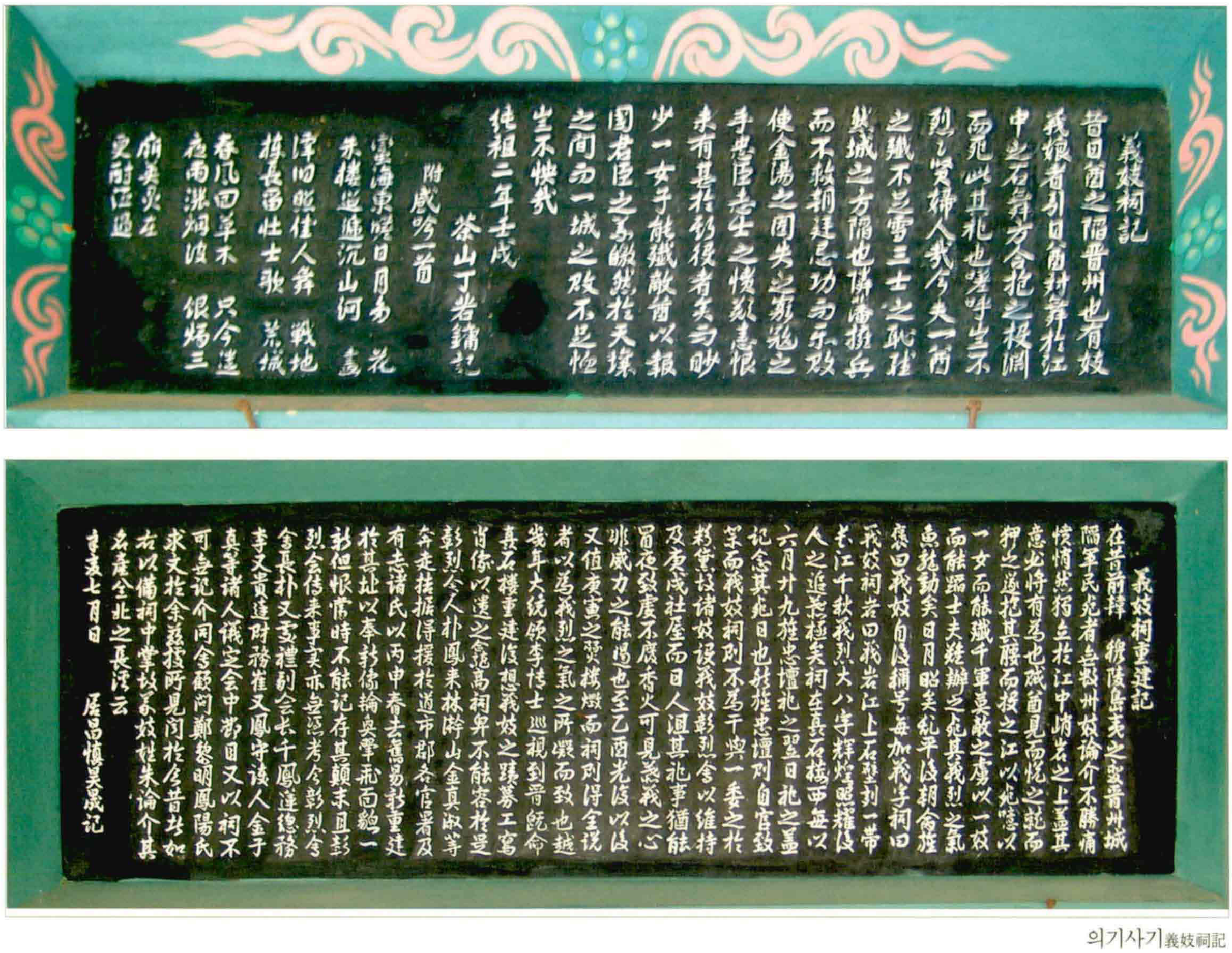
의기사義妓祠

지정 : 경남 문화재 자료 제7호
위치 : 진주성 남쪽

1740년 병마절도사 남덕하南德夏가 논개에 대한 포상을 왕에게 아뢰어 영조로부터 "사당을 세워 포상하라."는 비답을 받았다. 왕의 뜻을 받들어 남덕하는 의기사를 세워 논개의 위패를 모시고, 곁들여 이듬해에 최진한이 세운 의암사적비에다 '의기 논개의 문'이라는 비각을 세워서 새롭게 꾸몄다. 그리고 1766년 '의기 논개의 문' 아래 바위 벼랑에 "한 줄기 강물이 한결같이 흐르듯이 의롭고 매움도 천추에 영원하다(一帶長江 千秋義烈)"이라는 글자를 커다랗게 새겨 논개의 정신을 기렸다.






義妓祠記

昔田橘之鎭晉州也有妓
義娘者引日倭封舞於江
中巖石舞方合抱之極凋
而死此其花也嗟呼豈不
烈乎噫婦人我今夫一妓
之殲不足雪三士之恥孤
城之方陷也倘潘挾兵
而不救朝廷忌功而不敍
使金湯之固失之寇讎之
手忠臣志士之憤烈憑恨
未有甚於斯役者矣予眇
少一女子能殲敵酋以報
國君臣之義皦然於天壤
之間予一城之敗不足恤
豈不快哉

純祖二年壬戌　　茶山丁若鏞記

附感吟一首

蜜海東頭日月昏　花朱樓巡遍沉山河　盡
津回照佳人舞　戰地梯長留壯士歌　荒城
春風四草木　只今遙夜雨洒烟波　銀烽三
府兵火在　更耐江過

義妓祠重建記

在昔前輩　鞫陵島夷之毁晉州城
隔軍民死者無數州妓論介不勝憤
愎情然猶立於江中峭岩之上盡其
意必將有為也賊留見而悅之就而
狎之遂抱其腰而投之江以死嗚呼
一女而能蹈士夫蹤辦之死其義烈之氣
感動矣日月昭矣紀平段朝命旌
褒曰義妓自段稱号每加義字祠曰
義妓祠若曰義岩江上石壁刻一帶
長江千秋義烈大八字輝煌照耀段
人之追慕極矣祠在真石梅西無以
六月廿九旌忠壇祀之翌日祀之翌
記念其死日也旌忠壇列自官致
祭而義妓祠列不為干與一委之於
彩鳳妓倩妓設義妓彰烈舍以維持
及庚戌社屋而日人迴其祀事猶能
留在致虔不廢香火可見感義之心
非威力之能揜也至乙酉光復以後
又值庚寅之變棟燬而祠列得全說
者以為義烈之氣之所鍾而致也越
幾年大統領李侍士巡視到晉飭蓼工寫
真石樓重建復想義妓之蹟募工寫
肖像以遺之龍高祠卑不能容於是
彰烈公人朴鳳来林漪山金真淑等
奔走拮据得援於道市郡各官署及
有志諸氏以丙申春去嶌易基重建
於其址以奉彩像輪奐肇祀面貌一
新但恨當時不能記存其顛末且彰
烈公偉業事實亦無攷考今彰烈公
舍長朴又雯禮副舍長千鳳連總務
李又貴連財務崔又鳳守護人金子
真等諸人議定舍中榜目又以祠不
可無記介兩舍監尚鄭黎明鳳陽氏
求文於余慈授所見閔於今昔如
右以備祠中掌故義妓姓朱論介其
名產全北之長洋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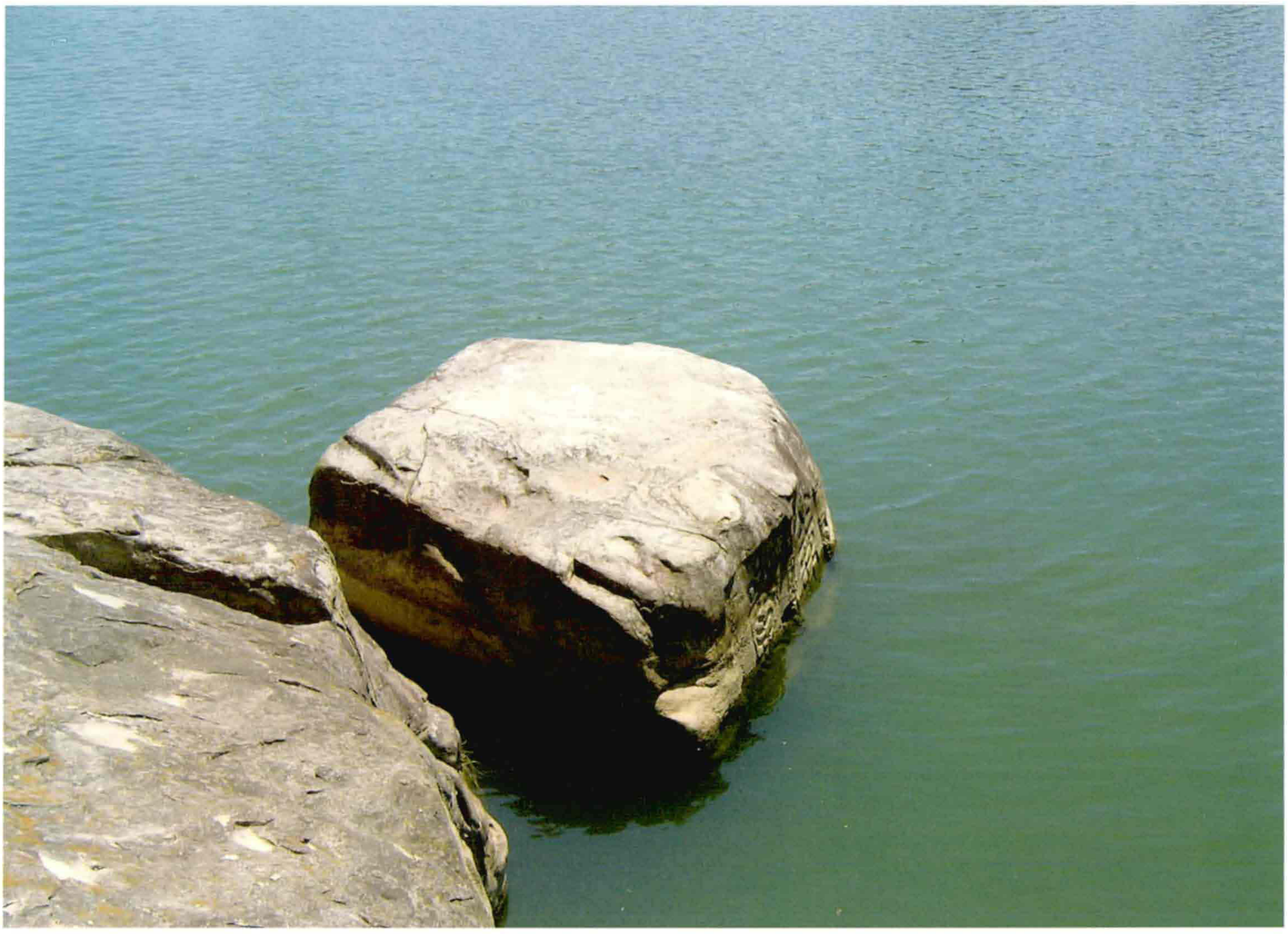
庚寅七月日　　屠品懷吳晟記

의암義巖

지정 : 경남 기념물 235호
위치 : 촉석루 아래 남강변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떨어졌던 바위에 '의암義巖' 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를 쓴 사람은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의병장이었던 정문부鄭文孚(1565~1624)의 둘째아들 정대륭鄭大隆이다. 글씨를 쓴 시기는 1625년에서 1651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만해 한용운 의암을 찾아서 지은 시 '논개의 애인이 되야서 그의 묘에' 라는 시의 일부분을 적어본다.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南江에 가지 안슴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섯는 矗石樓는 살가튼 光陰 따라서 다름질침니다
論介여 나에게 우름과 우슴을 同時에 주는 사랑하는 論介여
그대는 朝鮮의 무덤가온대 피엿든 조흔꽃의 하나이다 그레서 그향긔는 썩지않는다
나는 詩人으로 그대의 愛人이되얏노라……'





진주성과 촉석루, 그리고 남강.
촉석루 아래 논개사적비의 비각과
그 아래 수면에 의암(義巖)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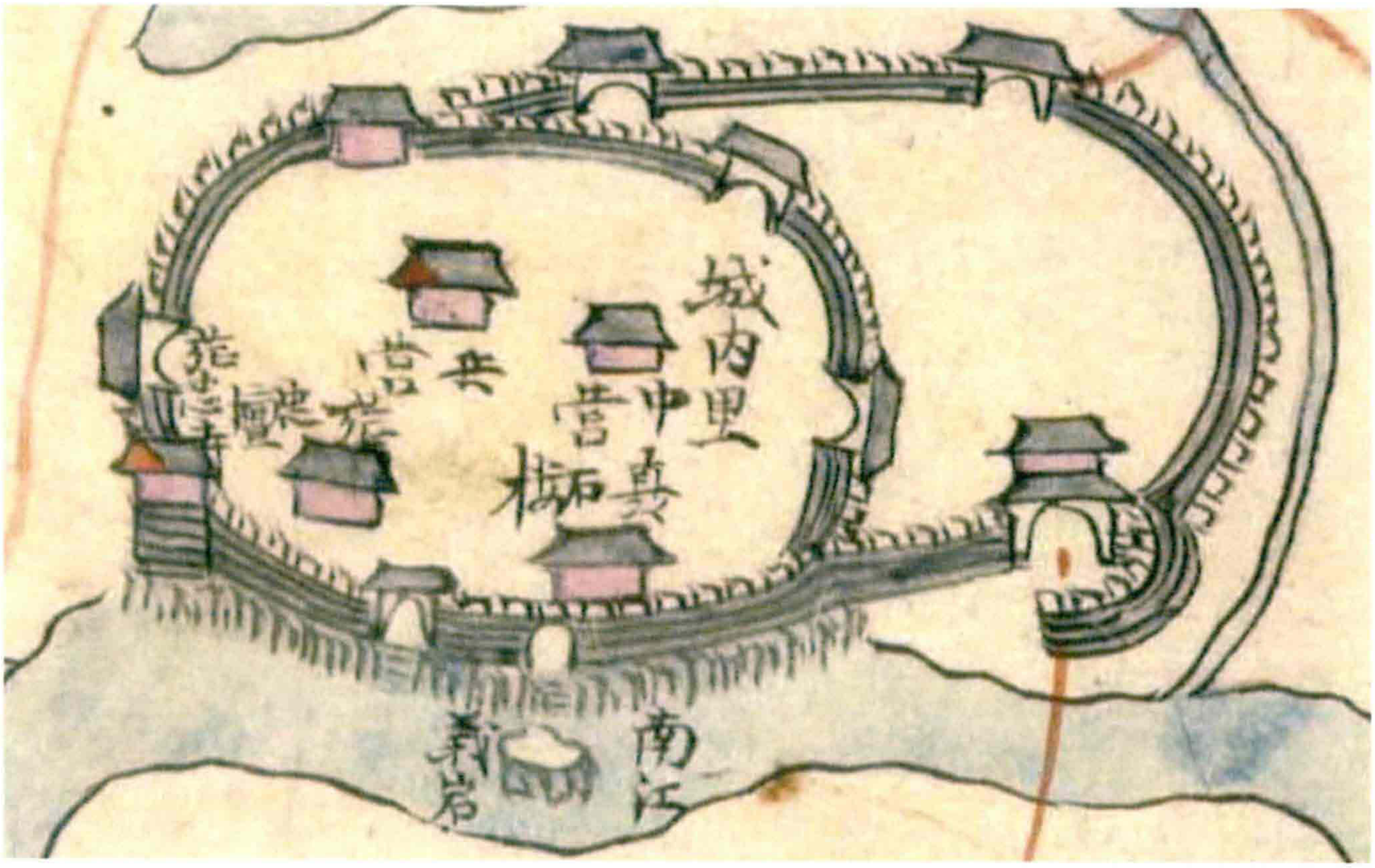


의랑 논개의 비(의기사 앞)

조선 후기(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진주성도



일제 강점기, 조선 명소로 소개된 촉석루와 의암



고지도에 그려진 진주성의 촉석루와 의암. 「해동지도」(1750년경)에서

논개의 애인이 되야서 그의 묘에

한 용 운

낮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섰는 촉석루는 살 같은 광음(光陰)을 따라서 달음질칩니다.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였든 좋은 꽃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향기는 썩지 않는다.

나는 시인으로서 그대의 애인이 되었노라.

그대는 어데 있느뇨 죽지 않은 그대가 이 세상에는 없고나.

나는 황금의 칼에 베혀진 꽃과 같이 향기롭고 애처로운 그대의 당년(當年)을 회상한다.

술 향기에 목마친 고요한 노래는 옥(獄)에 무친 썩은 칼을 울렸다.

춤추는 소매를 안고 도는 무서운 찬바람은 귀신나라의 꽃수풀을 거처서 떨어지는 해를 얼렸다.

가냘픈 그대의 마음은 비록 침착하였지만 떨리는 것보다도 더욱 무서웠다.

아름답고 무정한 그대의 눈은 비록 웃었지만 우는 것보다도 더욱 슬펐다.

붉은 듯하다가 푸르고 푸른 듯하다가 희어지며 가늘게 떨리는 그대의 입술은

웃음의 조운(朝雲)이냐 울음의 모우(暮雨)이냐 새벽달의 비밀(秘密)이냐 이슬 꽃의 상징이냐.

삐비 같은 그대의 손에 꺾기우지 못한 낙화대(落花臺)의 남은 꽃은 부끄럼에 취(醉)하여

얼굴이 붉었다.

옥 같은 그대의 발꿈치에 밟히운 강 언덕의 묵은 이끼는 교긍(驕矜)에 넘쳐서
푸른 사롱(紗籠)으로 자기의 제명(題名)을 가리었다.

아아 나는 그대도 없는 빈 무덤 같은 집을 그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이름뿐이나마 그대의 집도 없으면 그대의 이름을 불러볼 기회가 없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피어 있는 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피어 있는 꽃을 꺾으려면 나의 창자가 먼저 꺾어지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꽃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꽃을 심으려면 나의 가슴에 가시가 먼저 심어지는 까닭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여 금석(金石) 같은 굳은 언약을 저버린 것은 그대가 아니오 나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여 쓸쓸하고 호젓한 잠자리에 외로이 누어서 끼친 한(恨)에 울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오 그대입니다.
나의 가슴에 '사랑' 의 글자를 황금으로 새겨서 그대의 사당에 기념비를 세운들
그대에게 무슨 위로가 되오리까.
나의 노래에 '눈물' 의 곡조를 낙인으로 찍어서 그대의 사당에 제종(祭鐘)을 울린대도

나에게 무슨 속죄가 되오리까.
나는 다만 그대의 유언대로 그대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영원히 다른 여자에게
주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얼굴과 같이 잊을 수가 없는 맹서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여 그대가 용서하면 나의 죄는 신에게 참회를 아니한대도 사라지겠습니다.

천추에 죽지 않는 논개여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여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슬프
겠는가.
나의 웃음이 겨워서 눈물이 되고 눈물이 겨워서 웃음이
됩니다.
용서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논개여

논개의 나라사랑

고 은

살보살에게도 나라 있나니

나라 앞에서 나라 보살이 되었나니

의병 3천의 일 해내었나니

남강 흘러

논개

변 영 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땁던 그 아미(蛾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그 이름 의낭義娘, 논개

고두영

죽음에서 태어난 그 이름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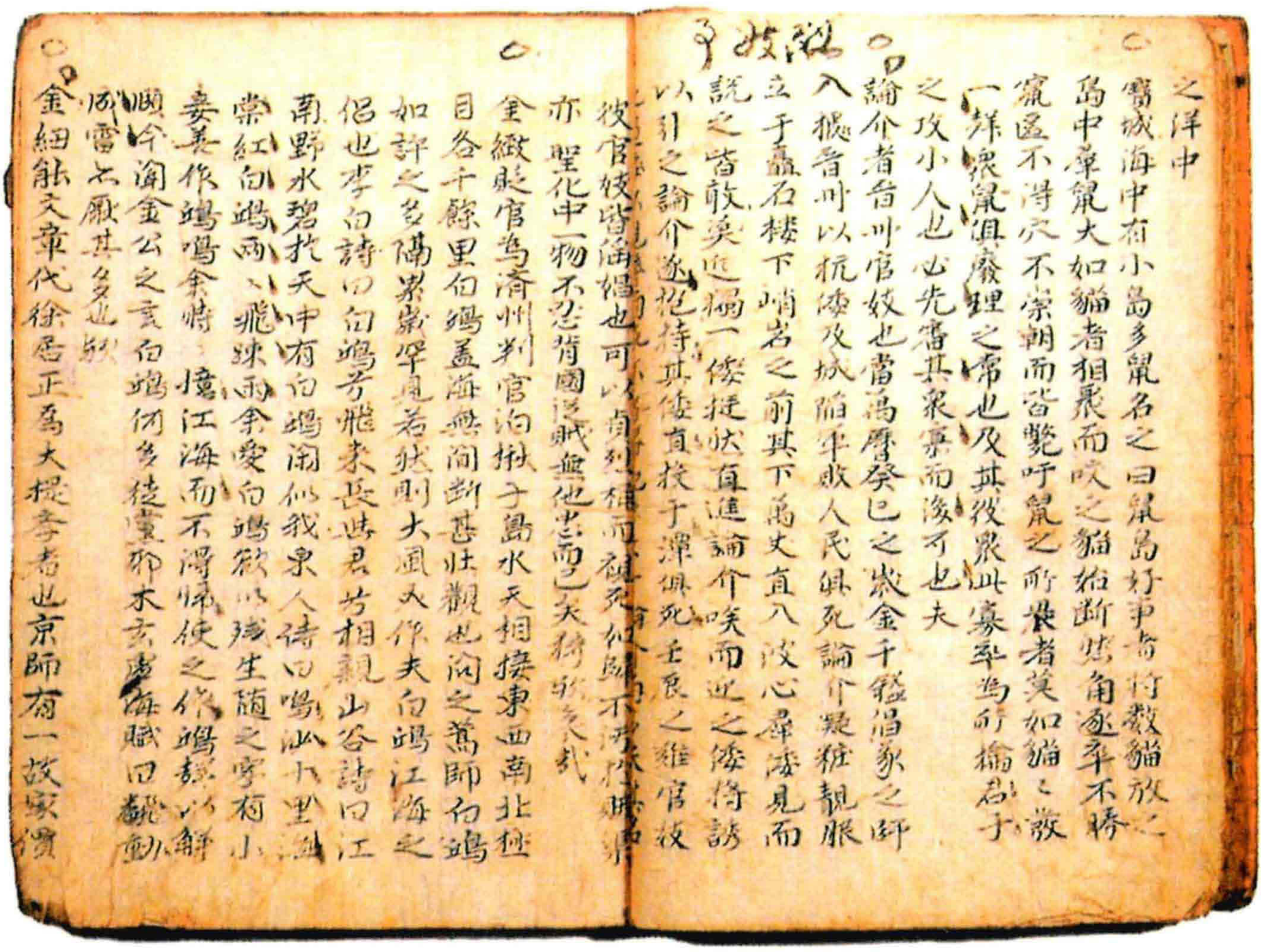
흔적없이
소리없이 임 가신 긴 여울목
고향집 부모 생애 그 모두를
슬픈 물결에 묻어두고
수모와 모멸과 천시를 넘나들던
서러운 이름이여!

햇빛에 떠오르면 正史가 되고
달빛에 잠기면 野史가 되거늘
햇빛 달빛도 비켜서버린
외로운 이름이여!

이젠
꽃빛 불빛으로
民衆의 가슴속 化石으로 새겨진
義娘樓에 不死鳥로 살아난
久遠의 女神
거룩한 이름이여
그 이름이여!

어우야담於于野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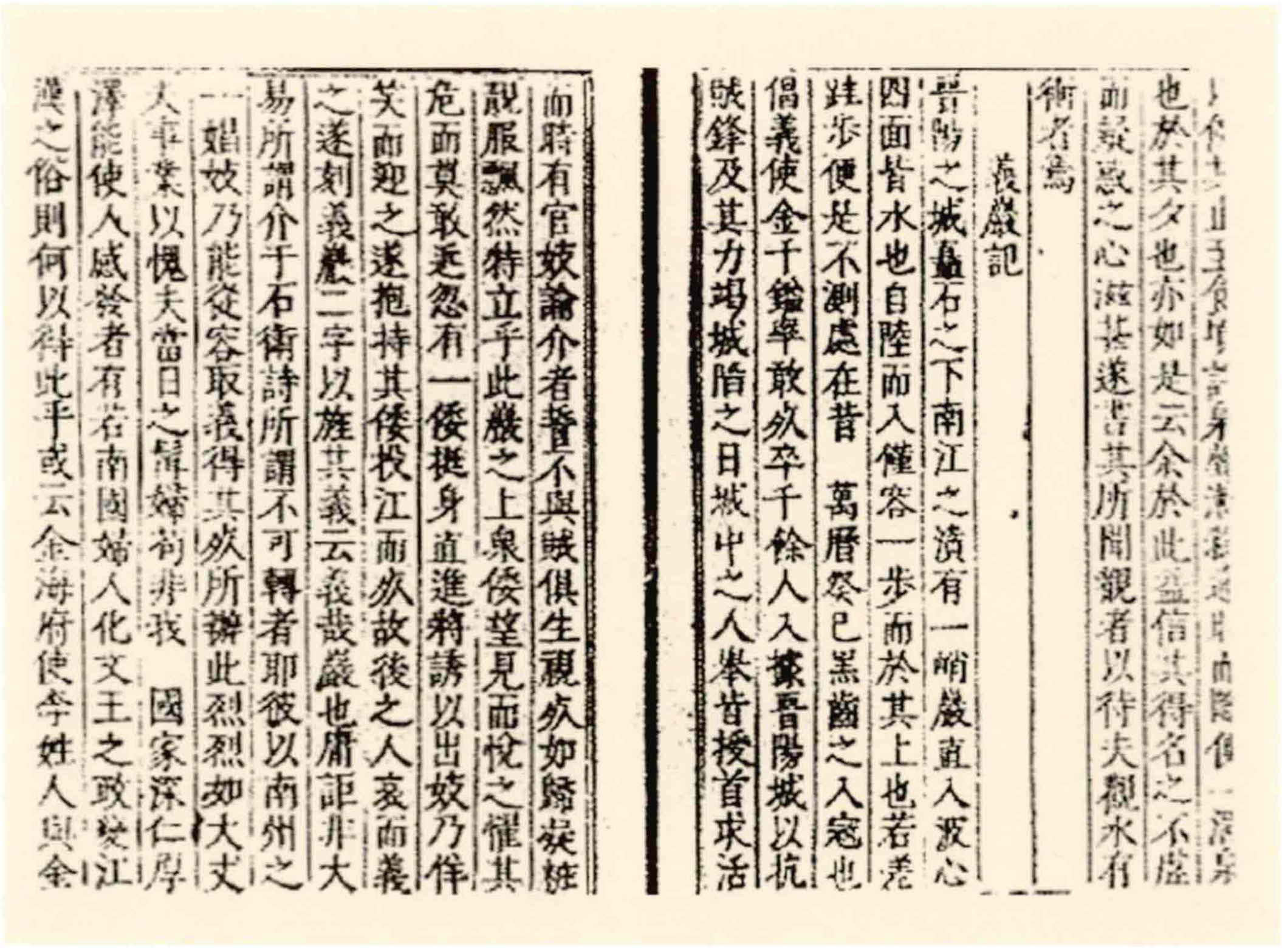
어우야담은 1621년(광해군13)에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이 당시 민간에 흩어져 있던 야담과 설화를 모아 필사본으로 편찬한 것이다.
내용은 권1은 인륜편, 권2는 종교편, 권3은 학예편, 권4는 사회편, 권5는 만물편이다.
이 책의 저자인 유몽인은 논개가 순국하던 계사(1593)년 가을에 광해군을 모시고 쑥대밭이 된 삼남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현장으로 다니며 직접 목격한 백성들이 겪은 참혹한 사실의 자료를 모으는 책임을 유몽인이 맡아서 왜적이 휩쓸고 간 곳곳을 다니면서 살피고 사실을 적어서 세자에게 드렸다.
그가 진주를 찾았을 때는 진주성싸움의 참혹한 모습이 살아남은 사람들 머리와 가슴에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 있던 때였다. 따라서 유몽인의 기록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적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之洋中
嶺城海中有小島多鼠名之曰鼠島好事者特教貓放之
島中鼠大如貓者相聚而吹之貓始斷炊角逐幸不勝
窺匿不得穴不崇朝而皆斃吁鼠之所最者莫如
一洋狼鼠俱廢理之常也及其被衆叫囂率為所
之攻小人也必先嘗其衆寡而後可也夫
論介者晉州官妓也當壬辰癸巳之歲金千鎰倡家之奸
入楓音叫以抗倭及城陷半數人民俱死論介凝粧靚服
立于矗石樓下峭岩之前其下萬丈直入波心羣倭見而
說之皆欲奚近論介嫚罵倭而進論介唉而迎之倭將誘
以引之論介遂抱持其倭直投于潭俱死壬辰之雜官妓
彼官妓皆淪媚也可以前烈稱而論介倡死如此不愧
亦聖化中一物不忍背國從賊無他忠而已矣將軍
金徵赴官為濟州判官泊舟于島水天相接東西
目各千餘里白鷗蓋海無間斷甚壯觀也閔之黃
如許之多隔累歲舉頭若然則大風又作夫白鷗
侶也李白詩曰白鷗羣飛來長沙君若相親山谷
南野水碧於天中有白鷗閑似我東人詩曰鷗
榮紅白鷗兩兩飛疎雨余愛白鷗欲以殘生隨之
妻奚作鷗鳴余將憶江海而不得休使之作
憫吟閑金公之言白鷗例多徒慮耶木云處海賦
曰雪衣厭其多近欺
金紳能文章代徐居正為大提學者也京師有一故家貧

의암기義巖記

의암기義巖記는 1651년 경상우도 재상간심관(災傷看審官 : 병자호란으로 백성이 입은 재해와 상처를 살피는 관리)으로 진주에 내려왔던 오두인吳斗寅(1624~1689)이 지었다.

의암기의 일부를 옮겨 적으면…성이 무너지던 날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바치며 살기를 바랐으나 관기 논개라는 이는 맹세코 왜적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죽음 보기를 고향돌아가듯이 하면서 얼굴과 옷을 곱게 꾸미고이 바위 위에 홀로 우뚝하게 섰다. 여러 왜적들이 바라보고 좋아라 했으나 바위가 위태로워 두려워 할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는데갑자기 한 왜가 거침없이 똑바로 내려와 꼬여 내려고 했다. 이에 논개가 웃으며 맞이하여 마침내 그 왜를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그래서 뒷사람들이 슬퍼하며 의롭게 여겨 드디어 '의암' 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서 의로움을 기리며 이렇게들 말했다. "의롭다 바위여!"…


義巖記

也於其夕也亦如是云余於此益信其得名之不虛
而竟忘之心滋甚遂書其所聞覩者以待夫觀水有
術者焉
義巖記
晉陽之城矗石之下南江之濱有一峭巖直入波心
四面皆水也自陸而入僅容一步而於其上也若差
跬步便是不測處在昔 萬曆癸巳黑齒之入寇也
倡義使金千鎰率敢死卒千餘人入據晉陽城以抗
賊鋒及其力竭城陷之日城中之人擧皆援首求活
而時有官妓論介者誓不與賊俱生視死如歸竟挫
說服諷然特立乎此巖之上衆倭望見而悅之催其
危面莫敢近忽有一倭挺身直進將誘以出妓乃佯
笑面迎之遂抱持其倭投江而死故後之人哀而義
之遂刻義巖二字以旌其義云義巖也盧訒非大
易所謂介于石衛詩所謂不可轉者耶彼以南州之
一娼妓乃能從容取義得其死所辦此烈烈如大丈
夫平素以愧夫當日之靦顏苟生我 國家深仁厚
澤能使人感發者有若南國婦人化文王之政被江
漢之俗則何以得此乎或云金海府使李姓人與金

chapter II

제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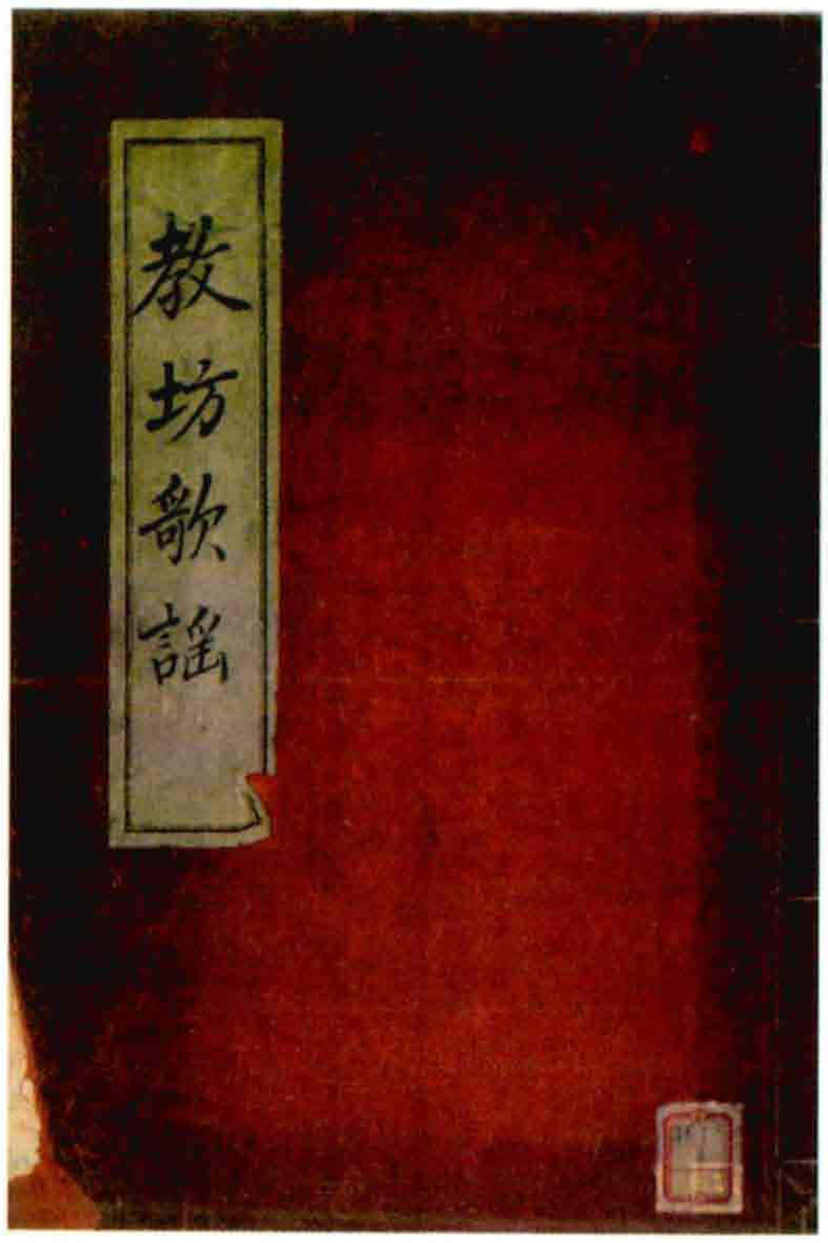
의암 별제

19세기 말 잠시(1869~1870) 진주목사로 내려온 정현석鄭顯奭은 오자마자 우병사와 의논해서 낡은 '의기사'를 다시 세웠다. 그리고는 논개의 제삿날 제사를 가다듬어 봄가을에 바치는 제사와는 사뭇 다르게 '의암별제가무義巖別祭歌舞'를 새로 만들었다. 제사의 절차를 맡는 제관은 모두 관기에서 뽑도록 하고, 유월에 좋은 날을 잡아서 해마다 바치도록 했다. 이렇게 시작한 별제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끊어졌는데 아마도 일제강점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다가 1970년대 정병욱이 관심을 갖고 그 뒤에 성계옥(제1회 의암주논개상추대자)의 노력으로 복원되어 1992년에 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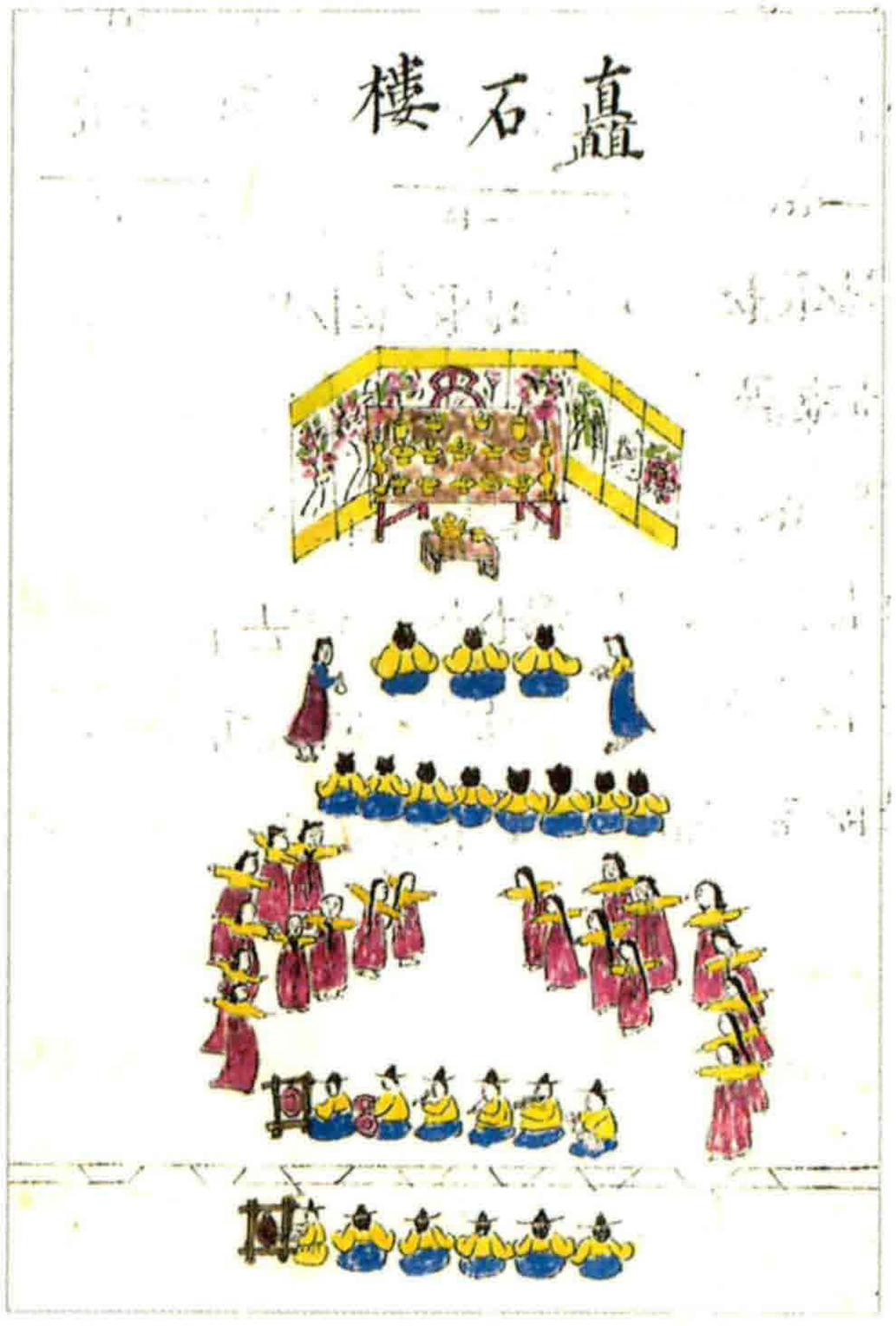





의 암 별 제



〈의암별제가무〉가 기록된
「교방가요」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의암별제지』(보고사)에서 수록



「교방가요」에 수록된 〈의암별제가무〉 도판
(국립중앙도서관본)



「교방가요」에 수록된 〈의암별제가무〉 도판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본)

촉석루에서 복원 · 봉행된 '의암별제'의 헌관 집례 장면 (1992)



촉석루에서 봉행된 '의암별제'의 의암 가무(歌舞) 장면(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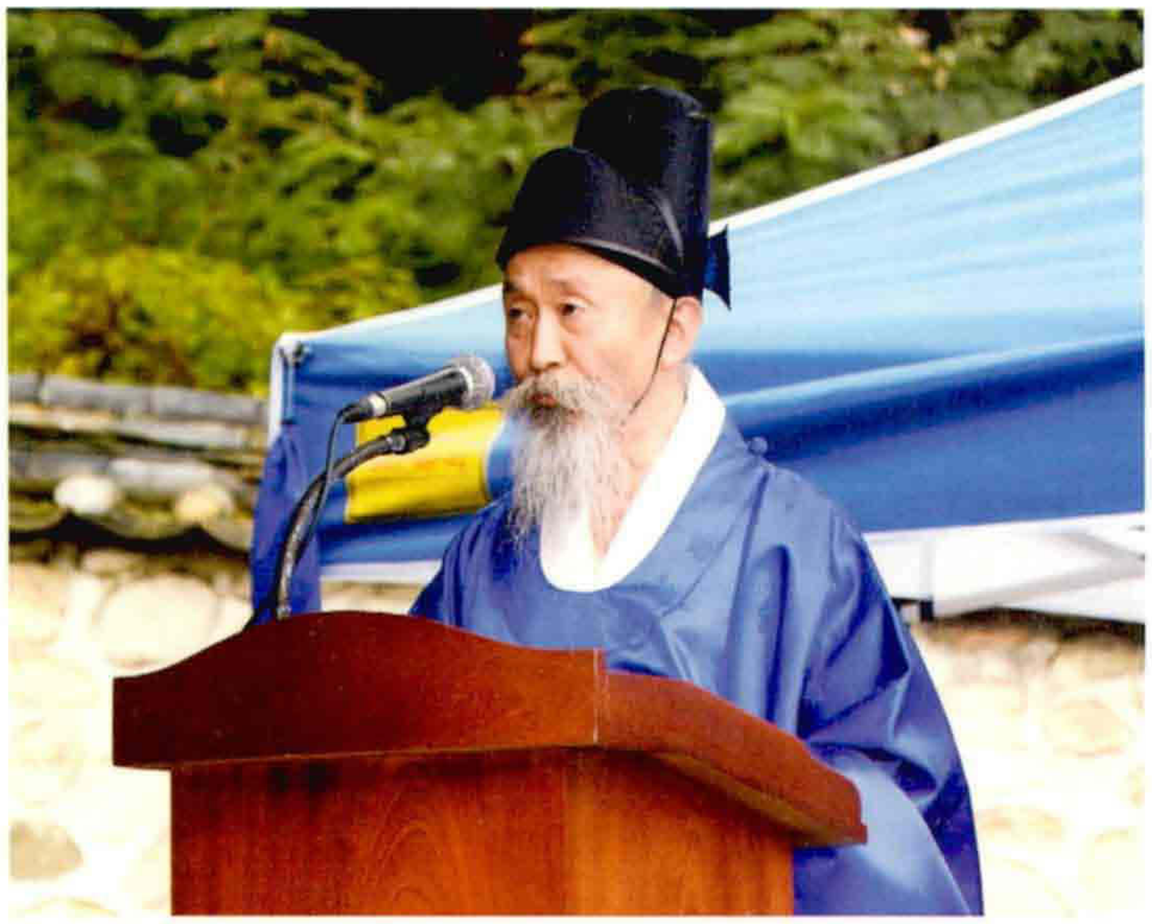
제례봉행













기념식








제10회 의암 주논개상
수상자 김 별 아
상금 : 일천만원정(₩10,000,000)
장수군.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논개 판소리


제7회 장수 논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일시 : 2016. 9. 3.(토) ~ 9. 4.(일)
■장소 :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_ 다목적실


제7회 장수 논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일시 : 2016. 9. 3.(토) ~ 9. 4.(일)
■장소 :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_ 다목적실

농악





논개시 퍼포먼스





심포지엄


일시 : 2017. 10. 14.(토) 16:00 장소 : 장수군 계남면 타코마 연회실
불멸의 민족혼 아! 논개
논개정신 선양사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일시 : 2017. 10. 14.(토) 16:00 장소 : 장수군 계남면 타코마 연회실
불멸의 민족혼 아! 논개
논개정신 선양사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역대 의암 주논개상 추대자



제1회 의암주논개상
성 계 옥(成季玉)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이사장



제2회 의암주논개상
이 화 성(李花城)
호남대학교 이사장



제3회 의암주논개상
공 정 자(孔貞子)
남서울대학교 총장



제4회 의암주논개상
조 금 숙(趙今淑)
봉사인



제5회 의암주논개상
안 숙 선(安淑善)
국악인, 대학교수



제6회 의암주논개상
이 금 형(李錦炯)
광주지방경찰청장



제7회 의암주논개상

이 명 숙(李明淑)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



제8회 의암주논개상

이 호 균(李好均)

아동행복포럼 고문



제9회 의암주논개상

윤 미 향(尹美香)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제10회 의암주논개상

김 별 아(金별아)

소설가(논개 장편소설 저작)



제11회 의암주논개상

김 효 선(金孝鮮)

서울 여성신문사 사장



chapter III

논고

1593년의 논개, 2017년의 논개

나 종 우 (원광대 명예교수, 전북문화원연합회장)

Ⅰ.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밖으로는 정치 외교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예측 불허의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안으로는 국론의 일치가 쉽지 않아서,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펼쳐지는 국제질서에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새로운 정통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처해있는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사명이 우리들로 하여금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과 그 잠재된 능력을 새롭게 평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민족이든 이민족의 침략에는 저항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저항하다가 힘이 부치면 피난을 간다거나 항복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최후까지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내국토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했었다. 그러한 정신은 일찍이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조선왕조 사회에 있어서 미증유未曾有의 국난이었던 임진 · 정유왜란은 우리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국토 사랑의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제임스 · 미체너(James Michener)는 1954년 4월호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대중 잡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 '한국의 영원한 종교는 국토 사랑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 우리 민족은 수없이 많은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굳세고 슬기롭게 나라를 지켜왔다. 이렇게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던 힘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이 어렵고 위태로운 고비를 당할 때마다 힘차게 발휘되어진 불멸의 민족혼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민족혼이 구심점이 되어 오늘을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1953년의 논개는 2017년 오늘우리에게 다시 한 번 그 구심점의 정점頂點에 자리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본고에서는 이미 많은 선현들이 언급했던 '논개' 정신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시대별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오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17세기의 논개에 대한 인식

17세기는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시작되고 있다. 17세기는 이미 16세기에 시작된 조선 왕조적 지배 질서의 변화 혹은 수정이 한층 더 본격화 된 시기이며, 그것을 본격화

시키는데 큰 자극제가 된 것이 곧 임진왜란이었다.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의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문제와 함께 흐트러진 민심을 한데 모으는 일, 그리고 외침에 대한 경각심 등이 논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하였다.

조선 왕조는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였고, 이러한 사회에서 임진왜란은 민民에대한 인식을 다시 하면서 民이 구국救國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논개는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당시 17세기의 지식인(선비)들이 논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먼저 『어우야담於于野談』을 통하여 살펴보면, 어우야담은 1621년(광해군13)에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이 당시 민간에 흩어져 있던 야담과 설화를 모아 필사본으로 편찬한 것이다.

유몽인은 논개가 순국하던 계사(1593)년 가을에 광해군을 모시고 쑥대밭이 된 삼남(충청 · 전라 · 경상)을 돌아보게 되었다. 광해군은 무군사(撫軍司 :1593년(선조 26) 윤11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왕세자의 행영行營)를 이끌고 수원과 공주를 거쳐 동짓달에는 전주에 머물면서 왜란으로 고난을 겪은 군사와 백성을 위로하였다.

광해군이 이렇게 현장으로 다니며 직접 목격한 백성들이 겪은 참혹한 사실의 자료를 모으는 책임을 유몽인이 맡았다. 그는 삼도순안어사(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를 돌아다니며 살피는 임금의 사신)라는 이름을 띠고 왜적이 휩쓸고 간 곳곳을 다니면서 살피고 사실을 적어서 세자에게 드렸다.

유몽인이 진주를 찾아왔던 동짓달은 논개와 진주성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지 겨우 네 댓 달이 지난 때였다. 진주성 싸움의 참혹한 모습이 살아남은 사람들 머리와 가슴에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 있었을 것이다. 유몽인의 기록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적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유몽인의 논개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논개는 진주 관기였다. 만력萬曆 계사년에 김천일金千鎰이 의병의 장수로 진주성에 들

어가 왜적과 맞서 싸웠다. 성이 짓밟히자 군사는 패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얼굴과 매무새를 아리땁게 꾸미고 촉석루 아래 우뚝한 바위 위에 서 있었으니, 바위 밑은 바로 깊은 강물 가운데로 떨어지는 곳이었다. 여러 왜병들이 바라보고 좋아했지만 모두들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는데, 홀로 한 장수가 나서서 곧바로 다가왔다. 논개가 웃으면서 맞이하니 왜장도 그를 꾀면서 끌어당겼다. 드디어 논개가 그 허리를 끌어안고 물속으로 몸을 던져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 때 관기로서 왜적을 만나 욕을 보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논개 한 사람뿐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이름을 거의 잃어 버렸다. 저들 관기는 음탕한 창녀들이라 곧고 맵다(정렬, 貞烈)고 일컬을 수가 없다지만, 죽는 것을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또한 거룩한 임금의 교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의 하나가 아닌가? 차마 나라를 저버리면서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서 우선 어우야담 속에 왜 논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593년 계사년에 유몽인柳夢寅은 삼도순안어사가 되어 하삼도의 피해상황을 살피게 되는데, 진주에 머물면서 진주성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개의 이야기를 듣고 정사에 실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광해군 9년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1]에 논개가 관기官妓로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순국 사실이 기록되지 않자 이를 안타까워하며 논개의 순국 기록을 1621년 자신이 편찬한 《어

1) 동국신속삼강행실도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년(광해군 9) 왕명에 의하여 홍문관부제학 이성李晟이 편찬한 책 원래 1615년에 그 편찬이 완성되었으나, 간행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각 도의 경제력에 비례하여 전라도 6책, 경상도 4책, 공홍도(公洪道 : 충청도) 4책, 황해도 3책, 평안도 1책씩 분담하여 1617년에 그 간행이 완성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속삼강행실도 續三綱行實圖》의 속편으로서, 임진왜란 이후에 정표旌表를 받은 충신·효자·열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상·중·하 3편으로 편찬된 《신속삼강행실도 新續三綱行實圖》를 토대로 하고, 《여지승람》 등의 고전 및 각 지방의 보고자료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1,000여 사람의 간략한 전기傳記를 만든 뒤에 선대의 예에 따라서 각 한 사람마다 1장의 도화圖畵를 붙이고 한문 다음에 국문언해를 붙였다. 원집 17권과 속부 1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1~8은 효자, 권9는 충신, 권10~17은 열녀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속부는 《삼강행실도》·《속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는 동방인 72인을 취사하여 부록으로 싣고 있다.

우야담於于野談》에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어우야담 권1 인륜편人倫篇 효열孝烈에 논개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인륜편에는 효열, 충의, 덕의, 은둔, 혼인, 처첩, 기상, 붕우, 노비, 배우, 창기 등으로 나누어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통념상으로 볼 때 정실正室이 아니라면 당연히 처첩편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지만 어우야담에서는 논개의 이야기는 처첩, 노비, 창기에서 다뤄지지 않고 효열편에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편찬은 특히 임진왜란을 통하여 체득한 귀중한 자아의식 및 도의 정신의 토대 위에서 출발된 것으로 임진왜란 발발 이래의 효자 · 충신 · 열녀 등의 사실을 수록, 반포하여 민심을 격려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소재나 내용이 동국, 즉 우리나라에 국한되면서 그 권질卷帙이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질 뿐 아니라, 계급과 성별의 차별 없이 천인계급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행실이 뛰어난 자는 모두 망라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유몽인은「… 관기는 모두 음탕한 창녀들이라고 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논개는)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은 논개는 관기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반 사서인士庶人들이나 양반 부녀자들이 행할 수 있는 충과 열을 궁행躬行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개가 궁행하였다고 평가한 '충' 이란 정치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대의大義를 위한 자발적이고 실천적 헌신으로 본 것이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열烈이란 원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죽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논개의 순국사실을 개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2]

유몽인은 논개의 순국 기록을 1621년 자신이 편찬한《어우야담於于野談》에 남기게 된

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널리 유포되었다. 구전되어오던 논개의 순국 사실이 문헌이나 금석문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620년경부터라고 추정된다.

(2) 다음으로는 논개 순국에 대한 최초의 금석문이라 할 수 있는 진주 촉석루矗石樓의 의암義巖 전서篆書와 의암기義巖記, 그리고 의암사적비를 통해서 17세기 논개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다.

논개가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진주성 촉석루 아래 남강 변 바위에 새겨진 '의암義巖' 이라는 전서는 대체적으로 1624년(인조2) 쯤으로 보고 있다.

진주 사람들에게는 논개가 물에 뛰어든 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이 바위에다가 함경도 의병장 정문부의 둘째 아들 정대륭이 진주로 이사를 와서 의암義巖이라는 글씨를 써서 새겼다.[3] 그리고 1651년(효종2년) 경상우도의 재난을 살피러 조정에서 파견된 오두인(1624~1689)이 진주에 들렀다가 바위에 새겨진 '의암義巖' 이라는 글자를 보고, 촉석루의 현판 의암기義巖記를 지었다.[4] 이의암기가 쓰여 짐으로서 논개의 의거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앞서 忠과 烈이라는 측면에서 논개를 보아 왔다면 논개를 義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논개의 의義정신 또한 국토를 지킨 한 축을 담당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오병무「문헌에 나타난 논개」『논개의 생애와 충절』장수문화원(1997) 125쪽

3) 근래 진주에서 펴낸 『진양속지晋陽續誌』(1932)에는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의병장이었던 정문부鄭文孚(1565~1624)의 둘째 아들 정대륭鄭大隆이 그 글씨를 썼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위에 새겨 넣은 글씨는 정대륭 형제가 진주에 옮겨온 1625년에서 오두인이 『의암기』를 쓴 1651년 사이에 쓴 셈이다.

4) 당시 간관諫官이었던 오두인吳斗寅이 썼는데 논개 순국 후 후세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의암義巖' 이란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하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의암' 이 논개와 직접 연관이 있고, 그녀를 '의암' 이라고 부르는 연유도 여기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는 논개가 순국한 32년 뒤의 일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18세기의 논개에 대한 인식

18세기는 17세기에 이어서 임진왜란 · 병자호란 이후의 복구기라 할 수 있는데, 단순한 복구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에 대한 반성이 따랐고 이 때문에 새로운 제도 및 체제에 대한 잉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갔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사회 · 경제 · 사상 · 예술 면에서의 변화는 중세사회 안에서 일어난 가장 높은 수준의 근대 지향적인 변화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에는 왕권이 안정되었던 시기로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에도 약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즉, 논개에 대하여도 17세기까지의 충, 열, 의라는 개념 위에 국가의 보훈報勳이라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5]

1721년 전 진주 별장 윤적보尹商輔 등의 진정서(등장 等狀)에 보면

"진주성이 짓밟히던 날 장수와 벼슬아치, 수령과 장군, 이렇게 피로써 싸우던 서른 남은 사람들이 모두 꿋꿋이 버티다가 의롭게 죽은 다음에 오직 한 사람 논개라는 기생이 남아서 문득 나라를 위하고 도적을 죽일 수 있는 계책을 떠올렸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홀로 강 언덕 우뚝한 돌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성 위의 왜적 가운데서 우두머리 하나가 보고 아름답게 여겨 곧바로 논개 앉아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논개가 슬쩍 맞이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 왜장이 즐거운 생각에 빠져 마음 놓고 서 있는 사이에 논개가 왜적을 와락 끌어안고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바

5) 조경남의 '난중잡록' 에 나오는 격문을 보면 '한 사람을 상 줌으로써 천만 사람을 권하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다. 난중잡록의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다.

위는 강 언덕과 떨어져 있는데, 위는 두 사람이 상을 놓고 둘러앉을 만하고 아래는 곧 깊디깊은 물결 속입니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으니 그 왜적이 비록 용기와 힘이 있는 도적이라 한들 마음먹고 떨어지는 그 앙화를 어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진주 사람들의 진정서를 받아본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최진한은 장계狀啓를 올렸다. 조정에서 사실을 믿기 어렵다며 외면하자 진주 사람들의 뜻을 모아 의암사적비를 세웠다. 그리고 정식鄭○(1683~1746)이 지은 비문을 붙여서 다시 장계를 올렸다. 또한 진주성민들의 요청을 받은 경상우병사 최진한崔鎭漢은 1721년(경종1)에 기녀 신분으로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논개의 의열에 대한 국가의 포상을 비변사에 건의하였다.

그제야 경종 임금은 우부승지 박희진朴熙晋을 시켜 "관기 가운데 이처럼 뛰어난 절의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자손을 찾아가서 별도로 부역을 면제시켜 주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나라의 특별한 은전을 보이도록 하라."는 교지를 내렸다(1722). 임금의 뜻을 받들어 논개의 자손을 찾아 올리라는 공문을 관내에 띄웠으나 "본디 자손이 없었다."는 회답을 보내왔을 뿐이었다. 여기에 보면 처음으로 자손을 찾아 부역을 면제시켜주고 나라의 특별한 은전을 보이라고 하여 보훈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조정의 이러한 관심이 일어나는 시기에 당시 경상우병마사慶尙右兵馬使 최진한崔鎭漢은 진주의 사인士人들과 함께 의암 사적비義巖事蹟碑 [1722년(경종2)]를 세웠다. 당시 민관이 함께 재정을 출자하고 정식鄭○(1683~1746)이 비문을 지었다. 이 비문 가운데는

「…유독 가파른 그 바위 위에 그녀 홀로 우뚝 서있도다. 그녀가 그 바위가 아니었다면 어찌 죽을 곳을 얻었겠으며, 바위인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의롭단 소리를

든겠는가. 이 남강가의 높다란 바위에는 만고(萬古)의 꽃다운 마음이 서렸도다.」고 쓰여 있다.

여하튼 논개는 최진한의 도움으로 경종의 '칭찬' 을 듣고 "자손에게 나라의 은전을 내리는" 자리까지 살아났다. 그러나 "본디 자손이 없었으니" 논개가 받을 것은 하나도 없었고, 130년을 싸워온 진주 사람들에게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병마절도사 남덕하의 계청啓請은 영조로부터 "사당을 세워 포상하라."는 비답을 받았다(1740).

왕의 뜻을 받들어 남덕하는 의기사義妓祠(1740)를 세워 논개의 위패를 모시고, 곁들여 최진한이 세운 의암사적비에다 '의기 논개의 문' 이라는 비각을 세워서(1741) 새롭게 꾸몄다.[6] 이리하여 순국한 지 꼬박 147년이 되어서 논개는 진주 사람들 눈앞에 새롭게 일어섰고,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나라에서 바치는 제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럴 즈음에 박태무(朴泰茂, 1677~1756)는 『의기전義妓傳』을 지었다,[7] ' 그뒤 진주 사람들은 '의기 논개의 문' 아래 바위 벼랑에 "一帶長江 千秋義烈(일대장강 천추의열 : 한 줄기 강물이 한 결같이 흐르듯이 의롭고 매움도 천주에 영원하다)" 이라는 글자를 커다랗게 새겨(1766) 논개를 기렸다.

논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보훈 에 관한 또 하나의 것으로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의 구리 印章을 들 수 있다. 1746년 겨울 강물이 잦아진 남강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의 구리 도장이 나타났다. 진주성이 적에게 떨어지던 그 날 촉석루에서 남강으로 뛰어내린 절도사 최경회(1532~1593)가 가슴에 품었던 것임을 짐작케 한 인장이었는데 조정에서는 그

6) 경상우병사 남덕하南德夏의 노력으로 의기사義妓祠가 의암 부근에 세워지고, 논개 추모제가 매년 국고의 지원을 받아 성대히 치루어지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포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7) 의기전' 은 박태무(1677~1756)가 지은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 선비들은 독서를 통해 의리義理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 할 때마다 충신과 열사가 될 것을 자부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루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배회徘徊하며 결연決然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 …(중략)… 미소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臨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哀惜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녀의 기묘하고 비밀스런 계책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한 데서 나와 승승장구하는 적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패잔하여 상처만 남은 데에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서 남방의 수 백 년의 근기根基를 회복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앞 옛 역사에 일찍이 있었던가 …」라고 하였다.

의 충절을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어 그때까지 시호를 내리지 않은 것을 뉘우친 의정부에서 좌참찬(정2품) 권적(1675~1755)에게 시장(諡狀 : 임금께 시호를 내려달라고 청하는 행장)을 쓰게 했다(1750).

한편 18세기에도 논개에 대한 인식 가운데 하나는 17세기의 인식을 이어서 義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746년(영조22)에 쓴 오두인의 『양곡집陽谷集』 가운데

「…계사년에 왜적이 침입해오자 창의倡義를 하여싸웠으나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자 성 안의 백성들은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려 애썼지만 관기 논개만은 왜적을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로 여겨 순국키로 맹세하고 … 왜장을 맞아들인 뒤 그를 껴안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후세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 이란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情表하였다고 한다 … 그녀는 스스로 의義를 좇아 죽을 곳을 얻어 이처럼 대장부의 열렬한 사업事業처럼 처리處理 함으로써 당시 여염집 부인들을 부끄럽게 하였구려」라고 하였다.

1780년(정조4)년에는 당시 경상우도병마절도사 홍화보洪和輔가 그의 사위인 정약용에게 진주의사기晋州義妓祠記를 짓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부인들의 천성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 부부간의 도리道理도 모를 진대, 하물며 군신간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 그러나 한 연약한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 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 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라고 지었다.

이에 대하여 오병무는 ' 여인들이란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죽은 것을 두고 절열節烈이라 하지만 그 같은 행위는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죽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논개는 한갓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인 충忠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節烈과 충의忠義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8]라고 하였다.

IV. 19 세기의 논개에 대한 인식

19세기 전반에는 세도정치가 드러난 시대이자 외부로부터 천주교와 새로운 서양문명이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천주교의 유입은 일부 정치에서 소외된 지식층識者層과 일반 서민층까지 침투되어 평등의식이 확대되어 갔다. 19세기 중엽이후로는 안으로 부패, 무능한 양반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민중세력이 전국적으로 들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략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점차 19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침략과 저항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논개에 대한 인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래도 계속되어온 의義 정신은 이어지고 있는데 18세기의 義가 충의忠義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어졌다면 19세기에는 의열義烈이라는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1800년(순조1)에 간행된『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권지1의 임진의적壬辰義蹟 가운데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 (최경회)에 보면

「기생 논개는 장수 사람으로 공(公: 최경회)이 사랑하였다. 공을 따라 진주성에 들어갔으나 성이 함락되매 자기 몸을 잘 가꾸어 적장 두 명을 유인 마주 대한 채 남강의 위태로운 바위위에서 춤을 추다가 두 손으로 적장을 쳐 강물로 빠뜨리고 나서 자신도 죽었다. 뒷사람들은 그 바위에 새겨 놓기를 '의암義巖' 이라 하였으며 비를 세웠다.」고 하여 논개와 최경회와의 관계를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심 있게 살펴 볼 것은 논개가 장수長水사람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히고 있

8) 오병무「문헌에 나타난 논개」154쪽.

다는 사실과 최경회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는 기록도 이것이 처음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1831년(순조31)에 간행된 『충렬실록忠烈實錄』[9] 권2, 비변사장備邊司狀[10]. 을 살펴보면 논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촉석루 아래 남강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는 곳이 있으니 곧 의암義巖이다. 이 바위에 '의義' 자 호號 붙은 것은 왜란 직후이고 보면, 그 어찌 천만년을 두고 불멸不滅할 대의大義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한 충렬실록에는 「당나라 때 설인과薛仁果에게 항복한 장수 방선지芳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방선지에게 약취掠取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婦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 보다 뒤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기록도 볼 수 있다.

충렬실록의 소계문疏啓文 이후로 논개의 순국사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되어 정려旌閭의 은전恩典까지 조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또한 1839년(헌종5)에 간행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권지1.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논개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논개는 장수의 관기로 진주병사 최경회가 사랑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진주성이 함락된 뒤 왜장은 논개와 더불어 촉석루에서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논개는 왜장을 따뜻하게 돌보다가 그가 크게 술에 취하자 끌어안고 루樓아래로 함께 몸을 던져 죽었다.…」여기에서는 논개를 장수의 관기로 표현 한 것이 특이하다.

---

9) 『충렬실록』은임진왜란 때 전사한 진주목사 김시민과 우병사 최경회 등 27명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다. 정덕선 등이 편찬하였다.
10) 비변사장이란 비변사에서 올린 장계를 말한다

1846년(헌종12)「촉석루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를 살펴보면 이 비는 논개의 출생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장수현에서 세운 것으로 당시 장수현감 정주석鄭○錫이 비문을 지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국난을 당하였음에도 구차스럽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를 굽히지도 않는 것은 열사烈士에게도 어려운 일일진대 한갓 여자로서 대의大義를 판단하였으니 그 어찌 열렬烈烈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늠름한 열기熱氣가 해와 달처럼 밝았을 것이니 그 어찌 장엄치 아니한가…」하였다.

1872년(고종9)에 간행된『호남읍지湖南邑誌』장수현조. 절의편에는 논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의기義妓 논개는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사람으로 충의공 최경회가 현감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최공이 진주병사로 임진왜란을 당하였을 때 그녀가 따라갔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최경회라는 인물이 논개와 더불어 등장하면서 의열義烈이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논개에게 烈[11] 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최경회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조금 뒤이지만 1987년 해주 최씨 문중에서 발행한《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에 논개 관련 부분이 언급되는데, 최경회를 의미하는 경상우병사증좌찬성최공시장慶尙右兵使贈左贊成崔公諡狀에 논개 관련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11) 홍근호가 지은『열부정려기(烈婦旌閭記)』에 "부인의 행실은 죽음으로써 열(烈)을 나타내니, 타고난 천성(天性)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자로 '열(烈)' 의 뜻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열녀란 '세차고 사납고 굳세며 정열을 지키기 위하여 욕망을 불태워 없애고, 빛나고 밝고 아름다운 큰일을 한 여자' 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유교에서 특히 중요시한 것은 효(孝)와 열로, 효는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며, 열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의 여자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Ⅴ. 20세기 이후의 논개에 대한 인식

20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논개에 대한 인식은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최경회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전라북도 유림의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1903), 송병선宋秉璿[1836~1905]의 『충의공신도비명忠毅公神道碑銘』 같은 데에서 거듭 되풀이하여 최경회 절도사를 논개의 남편으로 기정사실화 하였다. 그리고 20세기에 나타난 여러 기록들은 거의가 그대로 뒤집을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20세기 이후에는 논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왜장과 춤을 춘 곳이 어디인가를 가지고 다른 견해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공수司空燧(1846~1925)가 지은 『한양오백년가漢陽五百年歌』(1913)를 보면

"잇ᄯᅢ 마참 왜장드리 촉셕루에 모여안ᄌᆞ 논기의 인물 듯고 슐먹고 츔을 출ᄌᆡ"(이때 마침 왜장들이 촉석루에 모여 앉아 논개의 인물 듣고 술 먹고 춤을 출 적에)라고 하여, 술을 먹고 춤을 추는 자리를 바위(의암) 위가 아니라 "왜장들이 모여 앉은 촉석루"로 바꾸었다.

이로부터 전라북도 유림에서 펴낸 『호남삼강록』(1903)과 통감부 시절 민간에서 펴낸 『초등대한역사』(1908)를 비롯하여 1950년대 뒤로 나타나는 여러 기록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되풀이했다.

12) 청구야담은 작자와 간행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조선 말기로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 간행된 『청구야담靑邱野談』[12] '진양성의기사생晋陽城義妓捨生'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왜장을 유인하여 강가의 바위위로 걸어 나오게 했다. 그 곳에서 함께 춤을 추었는데 이 바위는 강가에 우뚝 솟아 삼면이 모두 깊은 못이었다. 그래서 왜장의 허리를 안고 강물로 떨어져 들어갔다. 왜군의 진영에서는 크게 놀랐다. 고하여 춤을 춘 곳이 의암이다」라고 하였다.

이보다 조금앞의 기록으로 안민영安玟英(1816~?)의 『금옥총부金玉叢部』(1881)에 보면

"논개와 함께 이 바위에 올라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술이 반쯤 취하자 논개가 왜장에게 춤을 추자고 청하니 왜장은 기꺼이 일어나 함께 춤을 추었다. 그러다가 논개가 왜장의 허리를 끌어안고 소에 뛰어들어 죽었다." 고 하여 바위(의암)에서 춤을 추었다고 하였다.

장수교육청에서 발행한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 (1960)에 보면

"계사년 유월 왜적이 침입하여 진주성이 무너져 여러 장수가 싸우다 죽으니 성 안이 물고기 회를 친 듯하였다. 칠월 칠일 촉석루와 남강 위에 왜적이 승전 잔치를 열자 논개는 의분이 끓어올라 스스로 기생처럼 꾸미고 왜장 입화종무가 몹시 취하여 미친 것 같음을 틈타 일을 꾀했다. 준비한 열 손가락의 반지와 가슴 가득한 열기로 남강 깊은 물에 치마를 둘러쓰고 떨어져서……" 라고 하였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논개의 충,의, 열이나 진주성싸움의 참혹함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논개와 왜장이 함께 어우러진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술을 마시고 즐기는 왜적의 승전 잔치나, 춤을 춘 곳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세기에 논개에 대한 논쟁중 또 하나는 논개의 생장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수교육청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 (1960)로부터 여러 설이 대두되었다.

정비석의 「진주기 논개」(1982)에서 풍천을 '계내면 월강리 풍천마을' 이라 했다. 그런데 박종화의 「논개와 계월향」(1946)에서는 '장수면 연사리' , 진주의 의기창렬회가 세운 '의랑 논개의 비' (1954) 뒤쪽 「논개의 사연」에는 '내계면 대곡 주촌리' , 장수교육청의 '의암주논개랑생장지사적불망비' (1960)에는 '계내면 대곡리 주촌마을' , 장수향교에서 펴낸 『벽계승람碧溪勝覽』(1975)에는 '계내면 대곡리 주촌마을' , 전병순의 『논개』(1979)에서는 '계내면 대곡리 궐촌마을' 이라 하여 조금씩 엇갈렸다. 그러다가 1980년대로 넘어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계내면 대곡리 주촌마을' 을 논개의 고향으로 확정하였다.

또 다른 논쟁거리로는 논개의 영정과 신분에 관한 것이 있으나 주제 발표를 맡은 다른 두분이 언급할 것이므로 생략한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논개의 평전과 소설, 시 등의 문학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배호길의 『진주 촉석루와 주논개』(1965), 박종화의 『논개와 계월향』(1946), 전병순의 「논개」, 정비석의 「진주기 논개」, 정동주의 「논개」 같은 문학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논개의 충절을 그린 대표적 한시작품들로는 정식의 의암, 이지연의 의기사, 황현의 의기 논개비, 김택영의 의기가, 박치복의 논개암, 안종창의 의기암, 김창숙의 의기암, 산홍의 의기사감음義妓祠感吟 등이 있다.

정식과 이지연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 강점 시대에 지어진 한시들이다. 나라가 망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황현, 망국의 한을 품고 중국으로 망명한 김택영, 일제에게 모진 고문을 당해 평생 불구로 심산 김창숙, 매국노 이지용을 준엄하게 꾸짖

은 기생 산홍 등이 이 시기에 논개를 기리는 시를 지었다. 이들은 논개의 충절을 노래함으로서 자신들의 항일정신을 드러내고자 했다.

논개를 노래한 문학작품들 은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주로 일제 강점기에 항일의식을 바탕에 두고서 논개를 노래하고 있다. 한두 편을 살펴보면

심산 김창숙의 '의기암'

빼어나다 우리나라 역사에/기생으로 의암을 남겼구나

한심하다 고기로 배부른 자들/ 나라 저버리고 아직도 무얼 탐하는가

사당은 의암 위 벼랑에 우뚝하고/ 강물은 의암 아래 못에 잠기네

요즘 탐욕스런 무리들/ 이 의리 아는 이 적으리라

의기 논개의 충절을 들어 매국노의 한심한 작태를 꾸짖고 있다.

'논개' 를 소재로 현대시 작품으로 처음 발표한 사람은 수주 변영로이다. 논개에 대한 대표시라고 할 수 있는 '論介' 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3년 뒤인 1922년 '신생활新生活' 3호에 발표되었다. 3.1운동 3년 뒤 논개가 발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깁고

불붓는 정열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마음 흘러라…

님의 시인이자 애국지사 만해 한용운도 의암을 찾았다. 그가 남긴 '논개의 애인이 되야서 그의 묘에' 라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南江에 가지 안슴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섯는 촉석루矗石樓는 살가튼 광음을 따라서 다름질침니다

論介여 나에게 우름과 우슴을 동시同時에 주는 사랑하는 論介여

그대는 조선朝鮮의 무덤가온대 피엿든 조흔꽃의 하나이다 그레서 그향긔는 썩지않는다

나는 시인詩人으로 그대의 애인愛人이되얏노라 …

만해는 논개를 과거의 역사 속 인물로 보지 않았다. 현재 나의 존재의미를 깨닫고 반성하게 하는 정신적 교감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논개의 애인이 됨으로써 정신적 교감에 의한 동일성을 얻고자 했다.

이처럼 논개의 역사 현장을 찾은 애국지사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논개' 를 간절히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에서 역사 속으로 잊혀져가던 논개의 거룩한 희생을 되새겨 민족정신을 드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시를 지었다.

VI. 맺는말 -2017년의 과제를 겸하여

이상에서 각 시대별로 논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선 17세기의 경우를 보면, 당시는 임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임란을 몸소 겪었던, 참혹한 피해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였

기에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당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기에 충忠이 가장 중요시 되고, 더불어 의義[13]가 강조 되었다. 그렇기에 논개는 바로 충과 의의 표상表象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기에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그의 행위는 이미 신분제 사회를 깨뜨리는 기폭제起爆劑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영원해야 되고 국가의 존망存亡앞에서 국가의 존립存立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다음으로 18세기에는 전쟁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왕권이 안정되었던 시기로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에도 약간의 변화를 감지 할 수 있다. 즉, 논개에 대하여도 17세기까지의 충, 열, 의라는 개념 위에 국가의 보훈報勳이라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애국자들에 대한 보훈이 강조되는 것은 국가가 안정되고, 애국심이 발휘되어야하기 때문일 것이다. 행위적인 애국이 잊혀 진다면 누가 위기에 몸을 던질 것인가. 18세기에 논개 정신은 애국의 귀감龜鑑으로 삼으려는 뜻에서 보훈이 강조되었다.

19세기에는 천주교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평등의식이 일반 서민층까지 침투되었고, 한편으로는 부패, 무능한 양반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민중세력이 전국적으로 들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략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점차 19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침략과 저항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러한 19세기에 접어들어서도 17세기 이래도 계속되어온 의義 정신은 이어지고 있는데, 18세기의 義가 충의忠義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어졌다면 19세기에는 의열義烈이라는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민民의 자각自覺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이후로 논개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최경회라는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보려는 시각이다. 이전 까지는 논개의 개인적인 충과 의가 강조되어왔다면 , 최경회라는 인물과의 사랑,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예컨대 춤

13) 義는 인간이 마땅히 가야할 바른길(人路)이므로 나라가 위급할 때 마땅히 목숨을 버릴 수 잇어야 한다는 것이다.

을 춘 곳이 촉석루인가 바위인가 등등에 대한 논쟁도 있어왔고, 다음으로는 논개를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이 많이 나오게 되어서 논개를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再照明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일제 강점기에는 애국지사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논개'를 간절히 부르면서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에서 역사 속으로 잊혀져가던 논개의 거룩한 희생을 되새겨 민족정신을 드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오늘, '논개'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논개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논개 사후 424년 동안 우리는 논개를 곁에 두고 살아왔다. 물론 때로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우리의 논개라고 우기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는 냉혹한 국제관계속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 현실에 처해있다. 지금까지 논하였던 각 시대마다의 논개정신 — 그것을 '불멸의 민족 혼'이라고 부른다면, 지금은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불러 세워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번 행사 '논개 따라 삼 백리'라는 행사도 논개를 구심점으로 하나 되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논개정신—그 속에 사私 있었던가. 그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아니었던가.

이제 그 정신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 할 때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장수, 최경회와 장수[14]에 관해서도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

또 역사적 사실 속에만 있던 논개를 오늘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고 그 논개를 앞세워 함께 걸어야 할 때다.

---

14) 지금까지 기록을 살펴 보면 1592년 7월26일 최경회는 광주에서 고경명 휘하의 흩어진 군사 8백여 명을 모은다. 그리고 골(?송골매)자로 장표를 삼았다.
이렇게 창의한 최경회의 전라우의병은 8월에 담양, 순창을 지나, 남원으로 이동하고 좌의병장 임계영은 구례로 해서 남원에 모였다. 최경회가 전 첨사 고득뢰高得賚로 부장을 삼으니 남원의 선비와 백성으로 의병에 참여한 자가 거의 6, 7백 명이 되었다. 두 군사가 장수에 근거지 삼아 머물면서 부장으로 하여금 금산 무주의 적을 잡을 조치를 하게 하였다.
전라우의병은 당초에 서울로 가려고 하였는데, 금산 · 무주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들이 전주와 남원으로 향하고 있어 바야흐로 호남지방을 유린할 형세였다. 전라감사 권율은 최경회에게 장수로 갈 것을 명한다. 장수는 최경회가 일찍이 현감을 한 곳이기도 하여, 전라우의병이 장수에 도착하니 백성들은 최경회가 끼친 덕을 기려 고기와 술을 보내오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전라우의병은 이곳(장수)에 주둔하면서 날쌘 기병 5백 명을 뽑아 전주 경계에서 적을 맞아 쳤는데 이곳저곳의 싸움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논개따라 삼백리

인　　쇄　2017년 10월 18일
발　　행　2017년 10월 21일
발 행 처　장수군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발 행 인　김순홍
편집위원　육영수 류정석 김진돈 이종호
사　　진　이종호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주　　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41
전　　화　(063)351-6400
F A X　(063)351-6401

제　　작　신아출판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북1길 16
전화 (063)275-4000

〈비매품〉

洋中
滅海中有小
鼠名之曰鼠為物乎有數
相聚而吹之貓始逐焉角逐
而當斃吁鼠之所衆者莫如
貓貓卒不
為之不放
于敗時之